

국립국어원 2009-01-63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153-01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
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 개선 연구

연구책임자: 박재현

공동연구원: 이승희



국립국어원 2009-01-63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153-01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
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 개선 연구

연구책임자: 박재현

공동연구원: 이승희

보조연구원: 이슬비

박지영



제출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의 국고보조 지원으로 수행한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 개선 연구”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연구책임자 : 박재현(상명대학교)

연구 기관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박재현

공동연구원 이승희

보조연구원 이슬비, 박지영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의 일환으로서, 공공 언어에서 발견되는 지역, 인종, 민족, 혈통, 이주자 등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 표현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서 수행된 ‘성별에 따른 차별 표현의 연구’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표현의 연구’와 더불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 사이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차별’의 문제 중에는 다양한 집단 간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차별적 언어 표현’의 문제도 포함된다. 따라서 ‘차별적 언어 표현’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여러 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를 위해 대상자에 대한 심층 면담과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협의회, 차별 표현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지역 차별 표현, 인종·민족 차별 표현, 혈통 관련 차별 표현, 이주민 관련 차별 표현으로 범주화하여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차별 표현에 대해서는 일대일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차별적 양상을 줄일 수 있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공공 언어에서 ‘차별적 언어 표현’을 찾아내고 이를 고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 인종, 민족, 집단 등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도 함께 논의하였다.

핵심어: 차별 표현, 지역 차별 표현, 인종 차별 표현, 민족 차별 표현, 혈통 차별 표현, 이주민 차별 표현

<차 례>

1. 서론	1
가. 연구 목적	1
나. 연구 방법	2
다. 선행 연구 검토	5
1) 차별 표현의 개념	6
2) 차별 표현의 분류 기준	8
2. 대상자 면담	13
가. 면담 개요	13
나. 면담 방법	13
다. 면담 내용	15
1) 중국인 면담	15
2) 일본인 면담	21
3) 몽골인 면담	28
4) 화교 면담	29
5) 재중동포 면담	31
6) 국제결혼여성 면담	32
라. 면담 결과	35
1) 개인적 언어의 측면	35
2) 공적 언어의 측면	36
3) 차별 표현의 양상	37
3. 전문가 협의회	39
가. 1차 협의회	39
나. 2차 협의회	44

4. 차별 표현 사례 분석	58
가. 지역 차별 표현	58
1) '비(非)-' 관련 표현	60
가) 강남 / 비강남	60
나) 서울 / 비서울(지방)	65
다) 수도권 / 비수도권	72
라) 서구(선진국) / 비서구	74
2) 기타 표현	79
가) 서울로 올라가다	79
나) 여의도 면적의 두 배 크기	82
다) 낙후 지역	85
라) '촌(村)-'류	87
나. 인종·민족 차별 표현	90
1) 인종 차별 표현	90
2) 민족 차별 표현	95
가) 조선족	95
나) 에스키모	100
다) 아메리칸 인디언 / 인디언	102
다. '혈통' 관련 차별 표현	104
1) '-계(系)' 관련 표현	104
2) 혼혈아, 코시안, 다문화 아동	108
3) 기타 표현	117
가) 토종 / 토종 한국인	117
나) 라이파이한	118
라. 이주민 관련 차별 표현	122
1) 동남아 노동자 / 이주 노동자	122
2) 결혼 이주 여성 / 여성 결혼 이민자	127
3) 귀순자, 탈북자, 새터민	134
5. 결론	144

1. 서론

가.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공공 언어에서 특정 지역·민족·인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언어 표현을 찾아내어 그 환경과 맥락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러한 차별적 언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표현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수 역시 급속도로 늘고 있다. 2008년 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10만 명, 국적은 195개국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2006년 기준으로 농촌에서 결혼하는 남성 중 41%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였다는 통계도 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20년 무렵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전 국민의 3%가 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준비는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단일 민족’과 ‘순수한 혈통’이라는 의식이 매우 강하며, 그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와 차별,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차별 의식도 강하다 (2007년 8월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이 이미 다민족 사회임을 인정하고 ‘단일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기존의 ‘단일 민족’, ‘순수한 혈통’만을 강조하는 의식과 태도로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해 가는 현실에 적응할 수 없음은 분명하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내포한다. ‘단일 민족’이나 ‘순수 혈통’, ‘혼혈’ 등과 같은 용어의 사용 자체가 이미 배타

적, 차별적인 의식과 태도를 반영하며 그로 인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언어생활에서부터 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다문화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 표현 중 공공언어에 노출된 것을 조사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특히 이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공공언어’는 단순히 ‘청자 혹은 독자가 불특정의 일반 대중인 언어’ 혹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전달되는 언어’라기보다는 ‘공적인 목적을 지니고 대중에게 전달되는 발화나 글에 사용되는 언어’를 가리킨다. 만약 전자의 의미로 ‘공공언어’를 규정한다면, 불특정 다수가 독자가 되는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의 댓글 등에 쓰인 언어도 ‘공공언어’의 범주에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비록 불특정 다수를 염두에 두고 한 발화·글이라 할지라도 역시 개인적·사적인 언어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언어’를 신문 기사나 방송 뉴스, 공식 문서나 공고문, 발표문, 공식적인 인터뷰 등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나타난 차별적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일상의 대화나 인터넷의 댓글 등 비공식적인 언어생활에도 다양한 차별 표현이 나타나며, 이들에 대한 조치도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차적으로는 신문·텔레비전 등의 공공언어에 나타난 차별 표현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데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언어에 나타난 차별 표현으로 연구의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 표현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면담 기법을 사용하여 차별 표현에 대한 언어 수용자의 관점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다. 유학생, 국제결혼여성, 재중동포 등에게 실제로 차별 표현을 경험한 사례를 수집하여 차별 표현의 경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 표현의 국내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차별 표현의 개념과 분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언어 수용자의 진술을 통해 귀납적으로 차별 표현 분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신문, 방송에 나타난 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적이고 비객관적인 언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8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10명의 조사원이 3개 조로 나뉘어 실시하였다. 8월 4일에 조사원에 대한 조사 방법 회의를 하였고, 1차 자료 수집 후에 8월 13일에 다시 모여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중간 점검 회의를 하였다. 자료의 수집 범위와 자료 분류 방식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담당	구분	내용
1조	신문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일간스포츠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포함 (소설을 제외한 기사, 의견, 광고를 조사함)
2조	방송	KBS, MBC, SBS, EBS, YTN (드라마를 제외한 뉴스, 시사 교양, 연예 오락, 광고) (역사극, 시대극 제외, 외국 작품 제외)
3조	인터넷	포탈(네이버, 다음) 사이트(기관·개인), 블로그, 댓글 등

<표 1> 자료 수집 범위

매체	유형	분야
신문	기사	정치
	의견(칼럼, 기고)	경제
	광고	사회
방송(TV)	뉴스	생활/문화
	시사고양	국제/세계
	연예오락	스포츠
	광고	연예
인터넷	사이트(기관/개인)	IT/과학
	블로그	기타
	기타(댓글 등)	

<표 2> 자료 분류 방식

일자	매체	유형	출처	분야	프로그램/ 기사 제목	표현	핵심어	이유
090825	방송	뉴스	MBC	정치	뉴스 테스트	혼혈아, 설 자리 없 나? 아직도 '이방인'	혼혈아	특정 인 종 차별
090825	신문	기사	동아 일보	사회		결국 유색인종인 아 들을 백인 스포츠의 황제로 키웠다.	유 색인 종	특종인종 차별

<표 3> 자료 분류 예시

셋째, 현황 파악을 위한 단순한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대안 표현 마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연구를 실시하고자, 전문가 협의회와 연구 대상자에 대한 심층 면접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의 주관적 시각을 보정하기 위해, 관련 분야 연구자, 언론사 기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두어 두 차례의 검토회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진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재중동포(조선족), 국제결혼여성(결혼이주여성), 탈북자들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 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다. 선행 연구 검토

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 표현의 개념과 분류 기준, 연구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인종이나 민족 등에 대한 차별 표현 연구가 적지 않았으나, 연구진의 검토 결과, 미국의 인종 문제 등 해외의 사례를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하기에는 그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가 심하여 이번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의 주요 선행 연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차별 표현’에 관한 국립국어원의 연구 보고서는 조태린(2006), 안상수(2007), 임영철(2008)이 나와 있다. 먼저 조태린(2006)의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 중,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객관적인 의사 전달을 방해하는 차별 표현들을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에서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명칭이나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양성 불평등’ 관련 표현, 신체장애를 비하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등의 ‘신체적 특성’ 관련 표현, 특정 인종을 비하하거나 자국 중심적인 사고를 반영하는 ‘지역·민족·인종’ 관련 표현, 특정 직업을 비하하거나 특정 종교 또는 지위를 비하하는 ‘직업 및 사회적 지위’ 관련 표현, 지시 대상 및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정보의 객관성’ 관련 표현 등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인종, 국적 및 지역 관련 표현’은 다시 특정 인종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자국 중심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표현,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안상수(2007)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는 방송·신문·인터넷과 같은 대중 매체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이들 대중 매체의 성차별적 표현

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 및 양성 평등을 위한 대안적인 표현들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념적으로 분류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성별 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불필요한 성의 강조’,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 비하’의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임영철(2008)의 ‘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장애인 차별 표현에 대한 일반인들의 차별 의식과, 대중매체를 통한 장애인 차별 표현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의식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평가와 현행 장애인 용어에 대한 대안 표현으로의 기능 검토’, ‘대중 매체의 장애인 차별적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의 의식 분석’, ‘대중매체의 장애인 차별적 표현에 대한 대안적인 표현 및 개선 방향 제시’의 세 가지를 주요 연구 내용으로 삼고 있다.

1) 차별 표현의 개념

우선 ‘차별(差別)’에 대해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살펴보면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이라고 되어 있다. 즉, 사전적 정의로 하면 ‘차별 표현’이란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표현’이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인권’이나 ‘차별’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차별’ 또는 ‘차별 표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강현철·이주일(2004)은 ‘인권 용어 해설집’에서 ‘차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차별(差別, discrimination)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복,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시설 및 직업 훈련 기관 이용 시 특정인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박정일(2004)에서는 ‘차별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차별적 언어 표현이란 받아들이는 입장과 말하는 입장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문맥이나 의도, 단어의 의미에 떨시와 차별의 관념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차별 표현은 그것을 발화하는 이와 수용하는 이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더불어 화자가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이 차별 표현을 발화하였더라도 그것을 듣는 청자가 자신을 차별한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 말도 차별 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의 발화 의도와는 관계없이 차별 표현의 절대적 의미 요소와 사회적으로 형성된 의미, 상황적 맥락 등에 따라 차별 표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화자가 청자를 차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차별 표현을 발화했을 때, 청자가 이를 차별어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차별어가 된다. 이는 특정 차별 표현의 의미에 대한 청자의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조태린(2006)에서는 ‘차별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차별적 언어 표현이란 한 사회의 소수자 및 약자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특정 단어·구·문장으로 이루어진 표현을 말한다.

매우 간단한 정의이지만, 조태린(2006)에서는 차별 표현이란 한 사회의 소수자 및 약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비판적 국어인식의 교육 방안을 연구한 박혜경(2009)에서는 차별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차별적 언어 표현은 한 사회의 개인 또는 특정 집단과 그에 관련한 사물 및 현상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말, 즉 편견과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특정 단어·구·문장으로 이루어진 표현을 말한다.

이처럼 박혜경(2009)에서는 차별 표현은 '발신자, 수신자, 언어 표현, 장면'이라는 언어 공동체의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개념적 요소와 더불어 언어 표현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사과의 '편견'이라는 내용적 요소를 충족하여야 차별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차별 표현의 개념에 관한 논의에서 공통된 속성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차별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는 언어 표현으로서, 특히 소수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내용적으로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담겨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기능을 하여 사회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고, 서로의 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이 점이 이 연구에서 주목하여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는 부분이다.

2) 차별 표현의 분류 기준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차별의 항목 중 지역·민족·인종을 차별어의 내용으로 보고 있다. 처음 사람을 대면했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 세 가지이듯이 지역·민족·인종은 한 개인을 형성하는 매우 기본적인 면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차별 표현 또한 매우 민감

하고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태린(2006)에서는 인종·국적·지역 관련 차별 표현을 특정 인종을 비하 또는 차별하는 '인종 비하' 표현, 자국 중심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자국 중심' 표현, 특정 지역을 비하 또는 차별하는 '지역 차별' 표현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신문·방송·인터넷 언론에서의 차별적이고 비객관적인 언어 표현을 살펴본 뒤, '인종 비하' 표현의 예로 '검둥이, 잡종, 유색인, 혼혈아', '자국 중심' 표현의 예로 '교포, 동포, 재외국민, 코시안'을, '지역 차별' 표현의 예로 '서울로 올라가다, 여의도 면적의 몇 배' 등을 들고 있다.

박혜경(2009)에서는 조태린(2006)과 강현철·이주일(2004)의 논의에서 지적한 차별성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참고하여 차별적 언어 표현을 유형화하였다. 이 중 지역·민족·인종 차별적 표현에 기여하는 요소는 출신 지역,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부각으로 인한 비하 및 차별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국적 및 인종 차별적 언어 표현은 특정 국적 및 인종에 대한 무비판적 차별론, 특정 국적 및 인종에 대한 무조건적 우월론, 자민족 중심주의적 혹은 자민족 비하적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 인식 조사에서 수집된 국적 및 인종 차별적 언어 표현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 둘째, 민족중심주의에 근거한 부정적 감정이 드러난 표현, 셋째, 흑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과 백인에 대한 우월적 표현, 넷째, '코시안·온누리안'과 같은 동남아시아에 국한된 특정 국가들에 대한 차별 의식과 관련된 표현들이 그 사례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박혜경(2009)은 지역·국적 및 인종 차별적 언어 표현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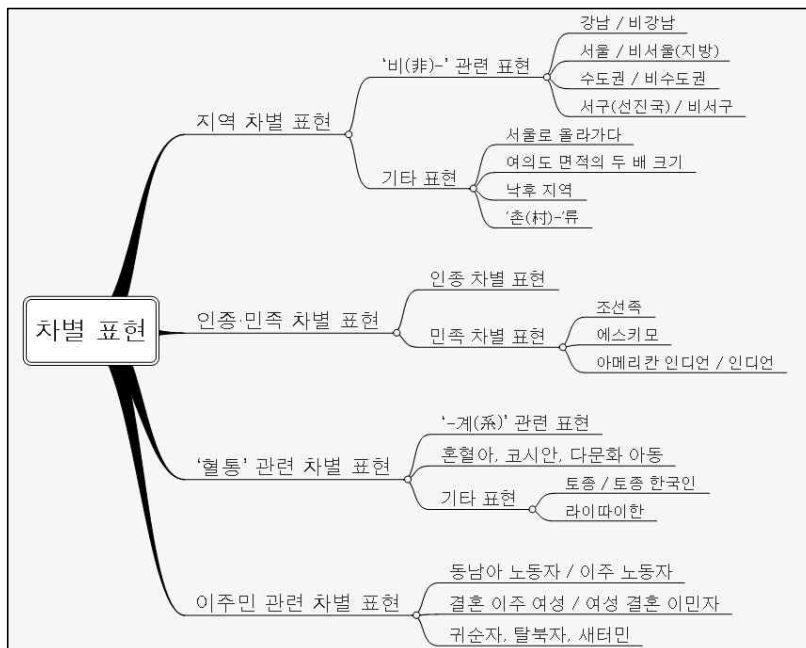
의미 유형		사례
지역 차별 론	수도권	여의도의 몇 배 크기라는 서울 중심의 표현. 서울 사람은 깍쟁이다. 잘난 척을 한다. 서울 출신이라 뻘질댄다. 인천 짬뽕. 마계인천. 뉴올리언스수원. 심시티 서울.
	충청권	충청도 핫바지. 명청도. 충청도는 느리다.
	영남권	개상도. 경상디언. 부산 사람은 무뚝뚝하고 예의가 없 다. 고담대구. 범죄 하면 대구다.
	호남권	라쿤 광주. 전라도 깡쟁이. 전라디언. 전라민국. 전라도 사람들은 남의 것을 잘 빼앗고 성질이 나쁘다.
	농촌	촌놈. 촌스럽다.
국적 차별 론	한국	조센징. 개고기를 먹는 야만족이다. 김치 냄새 난다. 한국인의 유전자는 우수하다.
	중국	떼놈. 짱개. 사기꾼이다. 계산적이다. 냄새나고 더럽다. 시끄럽고 예의 없다. 못생겼고 사납고 천박하다.
	일본	쪽바리. 잔인하다. 못생겼다. 거짓말을 잘 한다.
	미국	양키. 이기적이다. 비만덩어리다.
	기타	동남아시아인은 더럽다. 동남아시아는 처녀수출국이다. 남자 10명 중 1명 '외국인 아내'(신문기사)
인종 차별 론	흑인 비하론	깜둥이. 검둥이. 카카오 99%. 더럽고 천하고 폭력적이다. 흑색은 악이다. 살색. 아프리카의 검은 돌풍.(신문기사)
	혼혈 비하론	튀기. 믹스. 잡종. 코시안. 온누리안.
	백인 우월론	영국 신사. 문화적인 프랑스인. 희색은 선이다. 백인 국가는 선진국이다. 금발은 우월 하다.

<표 4> 박혜경(2009)의 분류 기준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선형적으로 분류 기준을 설정한 것과는 달리, 수집한 차별 표현 자료를 검토하여 귀납적으로 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깜둥이, 쪽바리’ 등 사적인 언어생활 전반에 걸쳐 논의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공적인 언어 표현만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수집한 다양한 차별 표현을 검토한 결과,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 표현이 서로 연관되어 이를 하나의 큰 범주로 묶어 다루기로 하였다. 또한 혈통과 관련된 차별 표현은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민족과 인종이 뒤섞이면서 발생하는 것이라 독립된 범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의 다문화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명이 생겨나 이러한 표현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표현 역시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나 노동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이동(이주)’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주민 관련 차별 표현’으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이 연구의 차별 표현 분류 기준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차별 표현의 분류 기준

우선 지역 차별 표현에서는 ‘호남권’, ‘영남권’ 등 지역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지역 차별에 작동하는 핵심 원리가 있음을 부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되는 ‘비(非)-’ 관련 표현을 중범주로 설정하고, 지금껏 논의되어 온 여러 가지 표현을 묶어 기타로 처리하였다. 지역 차별의 핵심은 해당 지역 앞에 ‘비(非)-’를 붙여 그 지역 밖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원리였다. 이러한 표현은 ‘강남/비강남’에서 ‘서울/비서울’ 등 다양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서울로 올라가다/지방으로 내려가다’와 같은 표현과, 면적을 기술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어 온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는 표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둘째, 인종·민족 차별은 대범주로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였으며, 인종 차별 표현에서는 ‘백인종’, ‘유색인종’ 등과 같은 표현을 다루었으며, 민족 차별 표현에서는 ‘조선족’, ‘에스키모’, ‘아메리칸 인디언’을 다루었다.

셋째, 혈통과 관련된 차별 표현을 민족·인종과 구분하여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였다. 우선 ‘한국계, 미국계’ 등에서 볼 수 있는 ‘-계’와 관련된 표현을 다루었고, 주로 2세들을 지칭하는 ‘혼혈아, 코시안, 다문화 아동’ 등을 다루었다. 기타 표현으로는 사람에게 ‘토종’을 붙여 부르는 표현과 특별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생겨난 ‘라이파이한’을 다루었다.

넷째, 한국으로 이동(이주)하여 정착한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을 ‘이주민 관련 차별 표현’의 범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최근 들어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결혼으로 인해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들을 부르는 표현도 매우 다양한데,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새터민’ 등의 용어 사용 문제를 실제 대상자의 인터뷰와 함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2. 대상자 면담

가. 면담 개요

이 연구에서는 차별적 언어 표현을 실제 접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차별 언어 사용의 상황과 차별 언어에 대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주제의 특성상 이론적 고찰뿐 아니라 실제 차별 사례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여 차별적 표현 경험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기본적인 목적은 차별적 언어를 실제 경험한 외국인들의 경험 및 견해를 이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인으로 구성된 연구자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못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의 외국인들에게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듣고자 하였다. 또한 참고할 만한 선행 연구가 그리 많지 않고 차별적 언어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 실제 외국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면담 방법

면담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 면담 대상 집단 확정: 앞 장의 선행 연구 및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차별적 언어 표현에 접촉할 만한 외국인 집단을 선정하였다.
- 집단 별 인터뷰 대상 선정 및 섭외: 각 집단 별로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때 한국 내 직업 또는 역할,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차별적 언어 표현에 노출되기 쉬운 외국인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면담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인

1. 곡장위(24세, 대학생, 여성), 하칭(23세, 대학생, 남성), 유녕(23세, 대학생, 여성), 계효하(24세, 대학생, 여성), 제효만(24세, 대학생, 여성)
2. 경위도(여성, 유학생)
3. 광영(30, 여성, 석사과정 유학생, 한국 거주 6년)
4. 스텔라(29세, 여성, 유학생, 한국 거주 약 2년)

● 일본인

1. 나카사와 유코 (여성, 한국 거주 10년, 정치학 박사)
2. 다케무라 에이고(28, 남성, 교사/석사과정 유학생, 한국 거주 4년)
3. 아스미(24세, 여성, 유학생, 한국 거주 약 1년)
4. 유키(20세, 여성, 유학생, 한국 거주 약 1년)

● 몽골인

빌구테이(남성, 21세, 유학생, 한국 거주 1년)

● 화교

소재위(25세, 남성, 화교 2세, 대학생)

● 재중동포

진홍보(42세, 여성, 재중동포, 한국 거주 10년)

● 국제결혼여성

1. 팜티퀸화(31세, 베트남인)
2. 자우엔샤(35세, 중국인, 한국 거주 7년)

- 면담 수행: 면담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직접 또는 간접 경험한 차별 표현’과 ‘차별 표현을 주로 접하는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면담 내용 및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 정리 및 분석: 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본 연구에 유의미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 면담 내용

면담 내용은 면담 일시, 면담 대상, 면담 질문과 답변 내용과 연구자의 견해를 덧붙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중국인 면담

중국인 유학생 집단

곡장위(24세, 대학생, 여성), 하청(23세, 대학생, 남성), 유녕(23세, 대학생, 여성), 계효하(24세, 대학생, 여성), 제효만(24세, 대학생, 여성)
일시: 2009. 6. 11.(목)

●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중국인에 대한 차별 표현을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까?

특히 차별적인 표현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것 중에 ‘짜장면놈’이란 표현을 본 적이 있었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중국인에 대한 인상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서점이나 상점에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었을 때, 중국에서 왔다고 답변하면 표정이 변하고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외국인이 많이 찾는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일본인에게는 친절 한 태도를 보이거나 중국인에게는 태도가 불친절합니다.

또 인터넷 회원에 가입할 때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경험합니다. 우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이 어렵습니다. 이름을 한글로 쓰면 영어로 쓰라고 하고, 영어로 쓰면 한글로 쓰라고 하는 등 혼란스럽습니다.

중국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특별한 차별 표현은 없으나 TV 보도에서 중국이 나오면 모두 부정적인 것입니다. 특히 불량식품 제조, 사기 등 범죄의 예로 중국을 많이 듭니다. 한국인 친구에게 그런 이상한 것에 대한 질문을 가끔 받는데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또 중국 관련 자료화면 중 최근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낙후된 모습이 많습니다.

※ 인터넷에서 찾은 ‘짜장면놈’의 사례

뉴저지 VS 마이애미 경기를 보고.. | 나의 NBA이야기 2005/11/08 15:26
<http://blog.naver.com/sbfh/100019255253>

이제 얼마만에 보는 NBA경기인지.. 1년여 만인 것 같다.
 살다가, **짜장면놈** 인터넷사이트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ㅋ 어쨌거나 각설하고..

이번 경기는 네츠 입장에선 답답한 경기였다. 우선 뉴저지는 제퍼슨, 카터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이 샷을 던지는 그런 유기적인 팀 플레이를 볼 수가 없었다. 카터와 제퍼슨의 개인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직된 팀공격이 전개됐다. 이러한 단편적인 공격패턴을 지속하고 선 마이애미의 수비를 확실하게 흔들 수가 없었다.

McBride

식보이닝 댄나라는 그렇다치고 **짱깨**가 대표팀이 **강하다**니요. -----;;;
 저도 제3세계 축구에 관심이 많습디다만 유일하게 **짜장면놈**엔 관심없는...
 극동아시아의 망신 블랙누들凸

[211.191.49.73] 05-02-23 14:44

[목록](#) [추천](#)

fulano

짱깨를 티벳에게 자유나 주라구 그러세요. 남의 나라 **악하다**고 침략해서 먹어버리고 자유도 박탈하고 주인행세하는 **짜장면놈**들이 올림픽해봤자 올림픽 의미만 희박해집니다. 오늘도 외칩시다! 티벳에 자유를!!!! 티벳에서 **tomatela los chinos boludos!**.

IP Address : 130.15.77.144

2008-08-07 13:13:32

경위도(여성, 대학원 입학 예정)

일시: 2009. 7. 9.(목)

❶ 중국인을 차별하는 표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나 경험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들어본 적이 없고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몇몇 차별적인 상황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면 더욱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게 주인은 다른 국적의 사람이 물건을 살 때보다 물건값을 더 비싸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온 것인데, 중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직이 어려운데 이런 점이 매우 힘듭니다. 한국에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고,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수도 매우 적은데, 이런 점에서 중국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중국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한국 사람들에게 유독 많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매우 불친절하고, 간혹 비싼 물건을 사면 “혹시 일본 사람이예요?” 이러한 식으로 말을 합니다.

또 대중 매체가 중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중국에 대해 나쁜 뉴스를 전할 때면 항상 과장되게 표현하여 한국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❷ 언어적 측면에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을 대할 때, 한국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중국어를 쓰면 한국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한국어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중국 친구와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무시하는 시선으로 저희들을 바라봐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하지만 한국의 어떠한 환경에서

중국 사람이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차별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학생인 경우에는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러한 차별적 인식이 바뀌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상은 바뀌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에게 잘 대하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생각했던 중국 사람하고 많이 다르네요.”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원인은 두 나라 간의 교류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곽영(30세, 여성, 중국인 석사과정 유학생, 한국 거주 6년)

일시: 2009. 7. 8.(수)

㉠ 본인이 겪었던 차별적인 언어 표현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결혼하기 전의 얘기인데, 시동생이 남편에게 자기의 대학교에 중국인 유학생이 많이 와 있다고 말하면서 ‘짱개’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처음 듣는 말이라 무슨 뜻이냐고 남편에게 물었는데 중국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혀 몰랐던 단어라서 그런지 심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좀 불쾌한 것은 사실이에요.

“중국에 ○○ 있어요?”라는 말도 차별 표현인 것 같아요. 친구 이야기인데, 교환학생 시절에 같은 반 남학생이 한국인 대학생한테 “한국 라면 맛있죠? 중국에 라면 있어요?”의 식으로 “한국의 ○○은 좋고 중국에 이런 게 있냐?”의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아 나중에 말다툼까지 했어요. 궁금해서 나온 질문일 수 있겠지만 말하는 이의 말투에 따라 중국인의 생활수준을 의심하는, 중국을 알보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는 동안에도 위와 비슷한 이야기를 중국인 유학생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중국인이 그렇게 더럽다며? 그렇게 안 씻는다며? 평생 동안 세 번밖에 목욕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라는 식의 말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중국인이 비슷한 질문을 한 번 정도 받아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인지 차별인지 구별이 잘 안 갑니다. 중국이 크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 생활 습관도 많이 다르고 개인차도 있습니다. 비교적 더운 지역(남쪽)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씻을 수 있고, 비교적 추운 지역(북쪽)의 사람들은, 특히 겨울에 영하 20~3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 속에 2~3일에 한 번씩 씻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수자원이 부족한 서부 지역 사람들은 목욕보다 식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잘 씻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따라서 한국인이 다소 이상한 눈빛으로 비슷한 질문을 던질 때 참 난감합니다.

제가 아는 중국인 원어민 교수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모기 눈, 바퀴벌레’도 먹는다고 들었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오해’라고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인의 식재료가 다양하다고 해서 ‘모기나 바퀴벌레’까지 먹지는 않습니다. 중국인은 혐기적인 민족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무척 황당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그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또 요즘 많이 쓰는 한국 말 중에 ‘Made in China’가 있습니다. 물건의 질이 안 좋거나 자주 고장 나거나 그럴 때 한국 사람이 진짜 ‘중국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 물건은 ‘Made in China’라고 말합니다. 중국산 제품이 그런 면이 있지만 중국 사람들의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짜증나는 말투로 말해버리면 당사자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❶ **차별 표현을 주로 접하는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활동 영역이 대학교가 되다 보니까 접하는 사람들도 대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차별적인 언어 표현은 한국인 대학생들에 의해 표출된 것이 많습니다.

❷ **한국의 차별적인 언어 표현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차**

별적인 언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대학생, 대학 교수, 공무원, 회사원 그리고 시택 식구들과 많이 접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차별적인 언어의 사용은 심각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별적인 언어 표현의 유형과 그 사용량도 그리 많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언어 표현의 사용을 줄이려면 중국 사람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한국 사람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외국과 외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 나라의 좋지 않은 것을 과잉 일반화하고,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외국인에게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본 다음에 언어 표현의 방식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달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텔라(29세, 여성, 중국인, 한국 거주 약 2년)

일시: 2009. 7. 9.(목)

○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중국인에 대한 차별 표현을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그다지 차별을 받은 경우는 없어요. 명동에서 길가의 액세서리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주인이 옆의 일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제가 중국 사람인 것을 알고는 지금 바쁘니까 빨리 가라고 하며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냥 물건을 사 버린 경험도 있습니다. 또 공연을 보기 위해 줄을 설 때 외국인 줄이 있어 그곳에서 있으니 스텝들이 중국 사람인 것을 알고, 외국인 줄에는 중국 사람이 포함 안 된다고 다른 곳에 서라고 한 경험이 있어 무척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 본인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경험한 차별 표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은 비교적 한국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되는 상황이 많아서인지 그러한 경험이 종종 있다고 했어요. 기숙사를 관리하는 선생님은 다른 국적의 사람들보다 중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중국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학생들 방에 문을 벌컥 열고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중국 학생들이 매우 불쾌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사용 시 주의 사항을 적어두는 곳에는 항상 중국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국적의 학생들도 주방을 같이 이용하는데 주의 사항에는 중국어로만 “주방을 더럽게 쓰지 마세요.” 등의 말을 써놓았습니다.

2) 일본인 면담

나카사와 유코 (일본인, 여성, 한국 거주 10년,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정치학 박사)

일시: 2009. 5. 5.(화)

90년대부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다니고 그 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으면서 저에게는 많은 한국인을 접하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중 대부분의 문화 체험은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을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유감스럽게도 일부 한국인의 실수로 인해 제 자신이 외국인으로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차별 체험은 주변 외국인과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함으로써 한국의 외국인 차별 연구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차별은 우선 ‘무의식적 차별’과 ‘의식적 차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 차별은 연구와 학습, 그리고 개선 과정을 거치면 차별의 시정과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적 차별은 공공장소와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유

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로 한국과 거래를 하는 일본인 비즈니스 종사자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김포국제공항이나 제주공항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공항의 여권 검사대 입구 등에는 ‘한국인’ 과 ‘외국인’ 표지판으로 진입로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제주 공항의 경우는 여권 검사대보다 훨씬 앞 단계인 탑승자 진입로부터 외국인은 다른 창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서 외국인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의 창구를 미리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여권과 비자 등으로 담당자의 업무 내용과 사용 언어를 미리 구별할 수 있음으로 직원의 배정과 일처리의 효율성이 우선시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여권’ 또는 ‘외국 여권’ 등으로 표지판을 변경하는 것이 요즘 외국 사례의 흐름을 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다양해지고 한국을 방문하고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거주 외국인의 국적과 문화도 극도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듯이 그들의 한국 방문은 한국 사회에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국’이라는 국적이 없듯이 ‘외국인’이라는 용어가 대단히 낡은 소리라는 의견은 일본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한편,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포를 생각해도 국적은 다르되, 자신을 한국적 문화와 배경을 지닌 자로 인식하는 자는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한국인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직장이나 다양한 생활양식 때문에, 거주하는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단지 여권 검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한국 등 외국을 방문하는 비율이 증가되면서 외국에서 여권 검사의 순간에 국적을 처음으로 의식하게 될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의식이나 의례 등, 사회적 철자가 사람들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주듯이 차별 등 한 국가에 대한 인식도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의 체험이 많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차별은 일본에도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흑인 어린이 인형이나 흑인 어린이가 등장하는 동화책 등이 크게 유행했던 상품들의 등장 배경은 흑인의 등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변화와 인권 인식의 변화를 거쳐 주일 흑인 단체와 관련

단체의 항의 목소리가 거세져서 결국은 그러한 상품의 제조와 유통이 중지되었습니다. 광고에 대해서도 인종 차별을 연상한다는 극소수의 의견으로 방송이 사과문을 낸 후 중단되었습니다. 그 상품의 구매자와, 광고의 시청자들의 대부분은 인종 차별을 느끼지도 못하였고, 상품의 유통 금지를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처럼, 공공의 장소와 방송을 비롯한 공공언어는 대부분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도 차별로 받아드리는 극소수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차별이 없어지고 차별에 대한 교육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의식적 차별’은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말임을 알면서도 표현하는 경우로서, 강력한 차단과 개선 교육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저에게는 외국인 차별 표현이 나라별로 존재하고 그 차별 표현이 오랜 기간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점이 한국의 특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일본을 비하하는 용어로 ‘일본놈(왜놈), 일본년(왜년), 쪽발이’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도 특별한 국가와 그 나라 출신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을 점령한 미국에 대한 차별 용어 ‘양키’, 식민지였던 한국에 대한 ‘조센’, ‘바카촌’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차별 표현을 보고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다른 맥락에서 ‘양키’나 ‘바카촌’이라는 용어가 나올 경우가 있는데, 뜻이 다르거나 화자가 차별 표현임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양국의 차이는 차별 표현의 선정과 행정적 금지 처리와 교육의 유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차별 용어를 포함하여 듣기 거북한 용어나 문제가 되는 용어를 차별 용어 또는 방송 금지 용어로 선정하여, 공공언어로 사용이 금지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대부분의 차별 용어에서 사용 맥락에서의 의미 변동 또는 사용 단절 현상이 보이는 것은 차별 용어를 선정하고 제도적으로 금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를 역사적 맥락에서 생각하면, 일본처럼 도저히 악감정을 해소시키기가 어려운 국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과연 한국 사회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여 왔고, 지금 현재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언어의 사용 상황은 바로 국

가의 문화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공공언어의 변화는 바로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가족 상황이나 신체조건, 직업의 차이를 가리키는 용어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공공언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장애인’, ‘고령자’라는 용어도 다른 용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식적으로 던진 외국인 차별 용어가 한국어이며 차별을 받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성공회대 인도인 연구학자에 대한 어느 한국인의 욕설이 신문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자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는 등, 한국 사회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한국어 능력과 문화 이해 수준은 각자 다르다고 해도, 자신의 한국 생활이 수월하고 유익하기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공통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기간만큼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경우, 다른 문화에 대한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가르치는 것에 더 치중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되어 왔으나, 언론 등 눈에 많이 띄는 부분에 비치는 한국의 ‘다문화’는 아직까지도 한국인과의 결혼, 한국어 말하기, 국방의 의무 등,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수용되어가는 점에 많은 비중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땅에 발을 내린 순간부터, 어쩌면 한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한국 사회를 알기 시작하는 것처럼, 한국 사회는 다른 문화를 접할 순간에 다문화에 대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입견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설사 다른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연구 프로젝트를 비롯한 외국인 차별 용어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인식과 행정적 개선이 거듭되면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구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케무라 에이코(28, 남성, 일본인 교사/석사과정 유학생, 한국 거주 4년)

일시: 2009. 7. 6.(화)

● 한국에서 차별적 언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제가 일본인이라서 차별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끔 길거리에 미친 듯이 큰 소리로 “일본XX들이 한국을 망쳤다”를 외치는 할아버지가 계시지만, 이는 노숙자가 화풀이를 위해 하는 말이지, 저를 향해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숙자 할아버지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욕을 하기 때문에 '일본'만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적인 표현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에서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면 식당의 점원이 아들이 일본에 산다든가 택시 운전기사가 딸이 일본에 유학 가 있다고 해서 반가워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또 저는 봉사로 가끔 군부대에 있는 교회에 찬양하러 가는데, 일본인이라고 하면 반응이 좋고 반가워합니다.

● 예상만큼 차별적 언어를 접하지 않은 데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아마도 제 추측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사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사람의 욕을 하는 것은 도덕에 위배되는 것이라 욕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인신공격’은 한국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데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관계’상의 이야기고 공적인 ‘뉴스, 신문, 잡지, 강연회, 설교’에서는 일본인에 대한 인신공격 제한은 해제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적인 뉴스에서 앵커가 ‘왜놈’이라 하거나 일본을 주제로 한 소설에서 ‘쪽바리’, ‘일본놈’이라는 말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은 더 심하며, ‘원숭이’라는 표현이나, 일본 여자에 대해서는 ‘문란하다.’ 등 성적인 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평소에도 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이거나 사적으로 나누지 못하지만 일본인이 그 자리에 있고 없고에 따라 차별적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니다. 물론 본인을 앞에 두고 욕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니 당연한 일이겠지만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욕을 못 들은 것이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일본에 대한 욕을 입에 올리는 것은 드문 일이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못된 교사라고 해도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놓고 욕을 하지는 않죠.

❶ **본인이 겪었던 차별적인 언어 표현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뉴스나 게시판, 언론 매체에서 ‘일본놈’, ‘쪽바리’, ‘원숭이’, ‘왜놈’이라는 말을 봤습니다. 기분은 당연히 나빴지만, 욕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부당한 경우에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차별 언어는 아니지만, 2005년 여름 쯤, 즉 ‘다케시마의 날’ 문제가 터졌을 때 명동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을 노리고 장난치는 대학생의 집단을 발견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현수막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인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서 사진을 찍어 줬습니다. 예상대로 한국 대학생들은 너무 기쁜 표정으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고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또 중국인(조선족)에 대해서는 돈을 좋아한다는 등 성격을 조롱하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은 자리에 있으면 중국에 대한 욕은 허용되는 듯합니다. 한국 사람끼리 있는 자리에서도, 한국인과 일본인이 섞인 자리에서 중국의 질서와 경제, 정치에 대한 비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동남아에 대해서는 ‘제3세계’를 비롯한 미개인으로 취급한 표현을 종종 들었습니다.

❷ **차별 표현을 주로 접하는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 매체, 인터넷 자유 게시판. 추측이지만, 남자끼리 모인 술자리에서도 주로 일본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❸ **한국의 차별적인 언어 표현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차별적인 언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사실은 일본 국내에서도 한국인을 차별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한국에 있는 일본인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 사람끼리 모이면 꼭 한국 사람은 어떠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은 어떠하다가 단순한 ‘한국 사람의 묘사’로 그치는 것은 드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과 같이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지 않은 차별 의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의식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에 대한 계몽도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존중하여 안 좋은 말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일 각국의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스미(24세, 여성, 일본인, 한국 거주 약 1년)

일시: 2009. 7. 8.(수)

일본인에 대한 차별 표현을 전혀 들어본 적은 없고, 그러한 표현들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일본에서의 재일동포 차별을 이야기하자면, 재일동포는 취직에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하는 사람 역시 취직이 어렵습니다. 저는 재일교포 3세인데, 어렸을 때 한국 사람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무척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유키(20세, 여성, 일본인, 한국 거주 약 1년)

일시: 2009. 7. 8.(수)

일본인에 대한 차별 표현인 ‘쪽바리’,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차별 표현인 ‘짱개’ 등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일본인 남자 친구가 그런 표현들을 한국인 남자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쪽발이’ 같은 일본인 비하 발언은 한국인 남자들이 일본인 남자들에게 하는 말로 인식됩니다. 한국인 남자들이 일본인 남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인 남자와 소개팅을 한 적이 있는데, 저를 그냥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 여자'로 보고, 일본 여자는 가볍고, 잘 논다고 말하며, 그 사람도 저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 무척 불쾌한 적이 있었습니다.

3) 몽골인 면담

빌구데이(남성, 21세, 몽골인, 한국 거주 1년)

일시: 2009. 5. 5.(화)

● 본인이 겪었던 차별적인 언어 표현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과 몽골은 매우 친밀한 관계이므로 차별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저에게 “너네 아직도 말 타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자신의 나라를 무시하는 것 같아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몽골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카지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조금 서툴게 하자 한국 남자가 ‘새끼’, ‘18놈’ 이러한 욕을 섞어가며 말을 해 무척 언짢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만나면 ‘몽고반점’과 ‘칭기즈 칸’에 대해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칭기즈 칸’이 무척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과 몽골 사람들은 모두 ‘몽고반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도 무척 유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어떤 점에서 몽골과 한국이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몽골은 한국과 매우 가까운 나라이고, 두 나라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피가 같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는 서로에게 모든 면에서 우호적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중국, 몽골 사람 이렇게 세 나라의 사람이 있을 때 한국 사람은 몽골 사람을 선택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몽골에 무척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국 사람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몽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은 중국, 일본과 모두 전쟁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은 이 나라들에 무척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무척 싫어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4) 화교 면담

소재위(25세, 남성, 화교 2세,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 중)

일시: 2009. 7. 10.

● 화교로서 본인이 겪었던 차별적인 언어 표현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차별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는 그나마 덜 차별 받고 상처 받으면서 자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던 말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친구와 싸우거나 친구의 부모님에게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얘기인데요. 화교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학교 후배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여자 후배에게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에 간다고 지하철을 타고 친구들과 중국어로 떠들면서 가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께서 “너네 화교들이지? 너네 엄청 무식한 애들 여기서 있지 말고 너희 나라 가버려.” 라는 말을 하셨대요.

그때 그 아이의 나이는 겨우 7살 이었는데 그 어린 아이가 받을 상처와 자라면서 느끼게 될 두려움을 생각하면 너무 큰 차별적 언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차별은 행정적인 부분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휴학 신청을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인터넷 클릭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학교에 유학생 교류부를 찾아가서 휴학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경영대 행정실에 와서 확인 받고 다시 유학생 교류부를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에 하면 그나마 덜 힘든데 시스템적으로도 잘 안 되어 있어 행정실과 교류부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라도 생기면 두세 번의 왕복은 감수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외국인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뿐입니다.

인터넷 가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등록번호가 뒤에 첫 숫자가 남자는 1에서 5로 여자는 2에서 6으로 밀려나면서 인증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서 인터넷에 가입을 하려면 팩스에다가 외국인 등록증 보내야 되고 답장도 기다려야 합니다. 답장이 오는 시간만 1주일 정도 걸리고 몇 개의 유명한 사이트 중에는 아예 답장이 안 와서 가입을 못 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또 같은 학비를 내고도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게 됩니다.

● 차별 표현을 주로 접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대학 동학들에게도 많이 듣고 저희 집이 중화요리 집을 하는데 저희 가게 몇 명의 손님들은 가끔 ‘짱깨’라는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열등한 사람들인 것처럼 대할 때도 있습니다.

● 한국의 차별적인 언어 표현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차별적인 언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속한 공동체나 학교에서는 심하게 차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배타적인 나라여서 다른 나라를 잘 못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언어적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개선 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 한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한 번

쯤 생각해 보고 고려하여 새로운 것들을 시도한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타 문화권 아이들과 접해 본다는 지적어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역사에 대해서만큼은 가르쳐 준다는 지 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재중동포 면담

진홍보(42세, 여성, 재중동포, 한국 거주 10년)와 그 한국인 남편

일시: 2009. 7. 8.~9.

● 본인이 겪었던 차별적인 언어 표현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을 구하러 여러 번 회사를 알아보았는데,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식당 일 등 힘든 일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전문적인 일은 앞뒤도 보지 않고 조선족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 그러나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경험은 없습니다. 저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구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아무리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과 한국인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홍보 씨) 저는 나이에 비해서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어, 가게에 가면 사람들이 예쁘다고들 많이 합니다. 이에 감사하다고 대답을 하면, 억양이 한국 사람이 아님을 알고, 일본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중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며, “중국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나? 중국 사람들은 못 생겼는데, 피부도 까맣지 않나?”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험이 비교적 많아 이때마다 중국인들을 매우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이처럼 일본 사람들은 예쁘고, 잘 생겼고, 똑똑하며 잘

산다고 생각하고, 중국 사람들은 못 생기고 가난하고 시골 사람이며 멍청하다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미국은 존경하는 발전된 나라이고, 중국은 한국보다 한참 아래의 나라로 생각합니다.

또 현재 ○○동사무소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선생님은 저와 비슷한 또래인데, 다른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자세히 잘 대답해 주지만,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헬스클럽에 다닐 때, 카운터에 있는 직원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항상 쌀쌀맞고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여 기분이 나빠 다른 헬스클럽으로 옮긴 적도 있습니다.

6) 국제결혼여성 면담

팜티퀸화(31, 여성, 베트남인, 국제결혼여성)

일시: 2009. 7. 6.(화)

● 본인이 겪었던 차별적인 언어 표현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한국은 차별이 좀 심한 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성별 차별, 지역 차별, 학력 차별, 외모 차별, 나이 차별 등이요. 특히 중국인, 일본인에 대해서 대놓고 막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흑인들에 대해서 원색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대부분 한국 사람이 서로에게는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조센진’이라는 말 들으면 좋겠냐?”면서 얘기하지만 쉽게 고쳐지지는 않을 듯합니다. 저는 어느 나라든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그런 차별적인 언어 표현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베트남 친구들이랑 동대문의 한 옷 가게에서 옷을 사려고 흥정했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 못 샀습니다. 그때 저희를 보내면서 가게 주인의 말 한 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런 누런 살색에 어떤 옷이 어울리겠냐? 진짜 재수 없다.” 우리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무렇지 않게 태연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지하철에서 겪었던 경험인데 자리가 없어서 저하고 한 백인 여성이 나란히 서서 가고 있는데 앞에 앉아 있는 한국 여성 두 명이 그 백인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오뚝한 코 좀 봐. 좀 독수리 같지 않니? 털 색깔도 이상해.” 한국에서 ‘깜둥이’와 같이 피부 색깔이나 외모에 대한 표현이 인종 차별 표현이 아닐 까 싶습니다.

또 제가 아는 베트남 언니는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큰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집에 와서 1시간 넘게 화장실에서 계속 목욕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같은 반 친구들이 그 아이에게 ‘깜둥이’라고 놀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열심히 씻으면 피부가 하얗게 변한다고 생각해서 계속 씻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엄마도 속상해서 같이 울었습니다.

언어적 차별을 생각해 보면, 차별적인 언어 표현을 직접 쓰기보다는 많은 한국 사람이 외국인에게 쉽게 반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도 많고 더 빨리 친해지고 편하게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말의 존댓말과 반말을 구별할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그것이 역시 좀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외국인에게 반말을 쓰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말에 서투른 외국인인 만큼 더 신중하게 말하고 바른 말을 쓰도록 더욱 신경 써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주변 베트남 친구들이나 다른 외국인 친구도 그런 경험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인데 어떤 다문화 가정의 필리핀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다문화 가정 엄마들에게 ‘이주 여성’이 아니라 그냥 ‘국제 여성’이라고 불러 줬으면 좋겠어요.” ‘이주 여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왠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약간 무시당한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❶ 차별 표현을 주로 접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차별 표현을 주로 접하는 장소는 아무래도 지하철, 시장,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주부이니까 시장에 가면 시장 상인들이 외국인들에게 반말을 많이 하거나 지나가는 중국 사람들을 보고 ‘짱깨’라고 하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무례한 말을 하든지 그런 경우들이 가끔 눈에 들어옵니다.

❶ 한국의 차별적인 언어 표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차별적인 언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이미 존재하고 사용해 왔던 언어 표현을 쉽게 없애거나 사용을 금할 수도 없겠지요. 한국 사람들에게 외국인, 인종 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각부터 바뀌야 말이나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차별적인 언어의 사용이 아직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지만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학교 같은 환경이나 젊은 세대의 집단들이 오히려 그런 차별적인 언어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일단 차별적인 언어 표현을 대신할 수 있는 올바른 표현들을 모아 항목을 만들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더 바르고 정확한 한국어 표현으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우엔샤(35세, 여성, 중국인, 한국 거주 7년)

- 일시: 2009. 7. 8(수)

❶ 본인이 겪었던 차별적인 언어 표현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들어본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시어머니는 자신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며 ‘바보’라고 하고, “왜 그렇게 말을 못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을 많이 하면

“왜 그렇게 나불나불 대니?”라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말들이 차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면담 결과

면담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개인적 언어와 공적 언어의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다. ‘개인적 언어’ 측면은 외국인-한국인의 면담 면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공적 언어’ 측면은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경우나 공공 매체에서 접한 경우이다.

1) 개인적 언어의 측면

면담 대상자들이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직접 겪은 차별적 표현은 많지 않은 편이었다. 즉, 외국인의 면전에 대놓고 차별적인 언어 표현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나 점점 국제적인 예의범절이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한편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노출 정도는 각 면담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면 외국어 교사로서 일하는 경우 학습자로서의 한국인들이 교사에게 차별적 언어 표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 가장 가까이에 모시게 되는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오히려 차별적 언어 표현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또는 한국에서 태어난 2세의 경우 어렸을 때 경험했던 차별적 언어 표현의 경험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개인적 의사소통에서는 대화하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차별적 언어 표현의 사용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 공적 언어의 측면

기본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적 표현인 ‘쪽바리’, ‘짱개’ 등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더라도 대부분은 알고 있었다.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인식하고 있으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들이 제기한 몇몇 사례 중에 신체적 특징에 대한 차별적 표현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났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직접 관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외모에 대하여 비하하며 험담하는 한국인 사이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사적인 관계에서 차별적 언어의 경험이 적은 반면, 뉴스나 인터넷 게시판, 언론 매체 등 공적 언어에서 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 표현을 들을 수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개인들은 맥락에 따라 어느 정도 말을 가리는 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언어에서는 이러한 차별 표현에 오히려 예민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경험하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타자에게 듣는 차별적 언어나, 공공 언어에서 무심히 행해지는 차별적 언어에는 ‘우리’와 ‘다름’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깔려 있다.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문화에 남아 있는 단일 민족 국가의 폐쇄적 분위기가 드러난 부분으로 보인다. 여전히 비슷한 피부색과 문화, 언어를 공유한 ‘우리’만 사는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 및 성숙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3) 차별 표현의 양상

가) 높임 표현

언어 사용의 구체적인 양상으로서 우선 외국인들에게는 반말을 쉽게 쓰며 특히 나이가 든 한국인일수록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여기에는 국제적 경험이 부족하여 외국인들의 나이나 지위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외국인에게는 일단 ‘하대’하거나 무조건 ‘존대’하는 등 편견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내부에서는 지위, 나이에 따라 상하관계에 예민한 데 반해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의식이 흐려지는 경향은 확실히 외국인들에게 차별적인 언어 사용이다. 유사한 현상은 외국인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나타난다. 요즈음은 외국인에게 ‘-씨’를 넣어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조심성 없이 이름만을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나) 지칭 표현

면담에서 외국인을 부르는 이름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을 ‘이주여성’보다는 ‘국제여성’으로 불러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주’라는 단어에 부정적이며 비하하는 어감이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이주 노동자’, ‘이주민’ 등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국제(international)’라는 개념은 ‘외국(foreign)’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요즘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타당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 생겨난 다양한 국적·인종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부를 것

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고 이는 앞선 연구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 명명(命名)은 그 자체로 구분 짓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 여러 가지 용어가 현재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용어의 함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고가 필요할 것이며, 이들 용어를 가리키는 이름(指稱)으로 사용하더라도 부르는 이름(呼稱)으로서 강조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또 다른 차별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번 면담 사례는 이러한 ‘이름’의 타당성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계속 주목해 나가야 함을 말해 준다.

한편 면담 내용에서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대상자들이 상당 부분 한국 사회에서 ‘차별’ 자체에 대해 응답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반적인 인식 차원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차별적 언어’에서 ‘차별’을 구별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이 두 개념을 분명히 분리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제도적 차별보다는 언어적 표현에 드러난 차별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 전문가 협의회

가. 1차 협의회

일자: 2009. 9. 23.(수) 13:00-15:00

장소: 국립국어원 회의실

참석자: 정희원(국립국어원), 박재현·이승희(연구진), 백경숙(한양여자대학교 영어과 교수, 사회언어학회 이사), 이길용(중앙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장애인 차별 표현 연구), 이경우(서울신문 기자)

정희원: 대안 표현을 명확하게 만들기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박재현: 40쪽 사례를 참고하시면, 권고하는 방식으로 기술하려고 해요. 일대일의 명확한 대체 용어를 찾거나 새롭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희원: 분명한 것은 있나요?

박재현: 그런 것보다는 사용을 삼갈 것을 권고하는 정도입니다. 일대일로 대체해야 할 적합한 용어는 별로 없어요.

이길용: 2008년 장애인 차별 표현 연구에 참여했을 때 대안 표현 마련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장애인 차별 표현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쿠퍼의 연구를 참고하여 검토 대상, 언어 향

목, 실제 계획(코퍼스 플래닝), 보급 계획, 이런 식으로 연구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4-5쪽에서 500여 건의 표현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지역 차별 표현의 전체상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0쪽 유형 1번에 어떤 규칙성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발견될 가능성이 있나요?

박재현: 이론적 배경은 미국의 선행 연구를 찾아보았으나 미국의 인종 문제 등을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백경숙: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다르니까요.

박재현: 분류 기준은 성차별 연구처럼 기준에 많이 된 것은 참고할 수 있을 텐데, 이 경우는 선행 연구가 없어서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례를 찾으면서 분류 기준을 귀납적으로 마련했고요, 500여 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발견이 필요한 것이며 조언을 받아서 하고 싶습니다.

이길용: 이건 생산성의 문제입니다. ‘라이파이한’이 안 좋은 용어이니깐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다른 용어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는지요?

백경숙: 실제 자료에서 경험적으로, 상황별로, 그럼 앞으로 분류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나온 것도 차별로 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쓰는 사람의 의도, 듣는 사람의 해석, 언어 사용자의 관점, 맥락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 글의 화제가 뭐였느냐, 기사에 따라서도 여러 분류가 있으니 장르가 뭐냐, 토픽이 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죠. 경로에 따라서도 전달에 따라서 다르고,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차별로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가 선형적으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험적으로 봐야죠.

- 선진국, 후진국: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저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서양은 선진국이 아니라, 종목 별로 선진국이 있고, 스포츠별로도 있겠죠. 어떤 맥락 안에서 얘기되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뉴스거리가 될 때는 우리가 두각을 못 나타내다가 잘 한 경우죠. 우리는 양궁 선진국, 태권도 선진국이 아닌가요?
- 강남, 비강남: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커다란 사회적 문제죠.
- 지방대: 여러 가지 읽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지역 소재 대학, 충남권 대학,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방언을 이제는 지역어라고 하는 것처럼, 지리적인 정보를 담아서 표현하면 좋겠죠.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사교육 시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교육에서 입시 상담하면서요. “지방에서도 명품대학 나올 수 있다.”라는 표현은 문제적이네요. 물론 ‘명품’이라는 용어도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 대안을 찾지는 못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사치품, 고가품처럼)이 가능할 수 있죠.
- 낙후촌: ‘달동네’라는 표현에 대해 본인들은 불쾌해 하죠. 정보를 소비하는 입장에 따라 정겨움을 느낄 수도 있으나 다르게 파악할 수도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한 번에 싹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판자촌’, ‘반지하’ 등은 객관적인 언어라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용어를 어떻게 해도 우리의 태도나 실제 사회적 위상이 바뀌지 않는 한 대안 표현을 찾더라도 바뀌지 않을 듯해요. 언어의 다양성 측면을 고려해야겠죠. 맥락, 주제 등에 맞게, 경우에 따라서는 느낌을 살려 써야겠죠. 사실 기사가 아닌 이상은요. ‘도시빈민촌, 슬럼화,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이것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다른 대안을 찾기도 마땅하지 않고요. ‘촌티 패션, 촌스런’ 등의 표현

은 기자의 시각이 아닌 기사 속 여자아이의 시각인 듯 하네요. 이걸 무조건 차별이라고 보기엔 문제가 있어요. ‘황색 탄환’ 스포츠에서는 인종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걸 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기준에 의해서 차별적 의도를 담고 쓰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된다고 봐요. 지역 소재 대안은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경우에 맞게 여러 가지 어휘를 마련하고 있다가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은 어폐가 있지 않나요?

박재현: 결국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한국인인데요.

백경숙: ‘코시안’이란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박재현: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지만 다문화 가정은 아니죠.

정희원: 지난번에 성차별 표현 연구를 했을 때 일반인의 시각과 폐미니즘적 시각에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연구자들이 상세하게 조사하면서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생각과도 비슷해야겠죠. 검토를 여러 번 해서 피해를 받는 입장과 실제 사용하는 언중들에게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 우면동 비닐하우스촌 같은 경우, 기사에서는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에 대한 일종의 정보를 주는 입장도 있어요(예: 김순희(여,40). 명쾌한 해답은 없으나 다만 여러 번의 검토와 장치를 통해서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경우: 문제의식을 갖고 쓰지 않는 경우가 많죠.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닌가 합니다. 문제의식을 지적하면 문제의식을 느끼더라도 설득 과정에서 어려울 것 같아요. 형식이 바뀐다고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코시안’이라는 말을 최근에는 신문에서는 안 써요. 그러나 ‘안 썼을 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아니면 가져올 수 있는가’, ‘말이 과연 사

회를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을 쓰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들어가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해요. 혼혈아가 쓰이게 된 사회적인 배경과 원인이 보고서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맥락이나 상황이 예시가 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정희원: 맥락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박재현: 맥락에 따라 비교가 될 수 있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원: '병어리', '병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 맥락에 따라 다른 것처럼요.

박재현: 탈맥락화해서 단어를 보는 것이 아닌 맥락 내에서 단어의 의미를 보고자 합니다.

이경우: TK, 서울 중심적인 표현의 예가 있네요.

박재현: '지하철2호선'도 그렇고, '서울로 올라간다. 지방으로 내려간다.'의 경우도 그렇죠.

이승희: 그건 한문에서부터 '상경', '낙향'의 사례가 있어요.

박재현: '여의도 면적의 10배 크기',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경숙: '북미원주민'의 경우, 영어에서도 이제 'Native'라고 안 하고 'aboriginal'이라고 하고 있죠.

이길용: 향후 연구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양적 연구는 힘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심층 면담 등 실질적인 연구로 갔으면 합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연구는 공공 언어에서 쓰이는 것이므로 웬만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종은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과 자본주의적인 이분법적인 분류(강남/비강남)가 나타나고 있군요.

나. 2차 협의회

일자: 2009. 10. 28.(수) 18:00-21:00

장소: 상명대학교 박재현 연구실

참석자: 박재현·이승희(연구진, 사회), 김호정(국민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한국어교육전공), 김은성(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연구 분야: 문법교육의 정의적 영역), 남가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연구 분야: 언어 인식의 경험)

사회: 그러면 자료의 순서대로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A :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양적으로 많지 않아서 분류하시는 데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약간 부적절한 자료가 아닌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회: 1번 선진국 후진국 사례 중예요?

B : 지역인데 선진국 후진국은 조금 부적절 하지 않은가요?

A : 크게 보면 지리적인 조건인 건 맞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기준이 들어간 거죠.

사회: 서구, 선진국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뉴스 기사 중에서 ‘선진국에 전유물로만 여겼던 수영’, 이걸 좀 설득력이 있나요?

A : 피겨 스케이팅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수영은 사실은 아시아 에서도 일본이 전통적 강국이어서 사실상으로도 안 맞는 감은 있죠.

C : 지금 선진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차별적인 것은 아니고 그게 앞에 예컨대 그런 몇몇 나라들, 흔히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몇몇 나라들

과 같이 쓰였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그런 특정 국가에 대해 굉장히 상위 지위를 무의식적으로 부여하는, 독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회: 여기서도 이건 미국, 일본, 독일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언급이 가능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특별한 사례 조사를 하지도 않고 선진국을 다루면서 무조건 미국, 일본, 유럽, 독일, 프랑스 등을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나라들이 선진국인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상위의 지위를 부여해서 특정 몇몇의 국가를 우대하는 표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A : 사실상으로는 맞는데 이걸 강조해야 되지 않을 맥락에서도 강조할 때는 이게 불필요한 강조고 그게 계속해서 언어적으로 공고한 지위를 부여해주는 강화의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매체니까?

사회: 그렇죠. 그럼 2번으로 넘어갈까요? 서울과 지방의 사례요. 여기 ‘지방대 출신이 캐나다 명문대 교수됐다.’ 여기서 지방대는 ○○대학교인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차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 : 지역 차별 표현의 중심적인 작동 원리는 중심과 비중심, 주류와 비주류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선진국 후진국은 사실은 서구와 비서구라는 지역으로 나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개발이 완료 돼서 이미 나아가고 있는 그 기준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뒤에 보면 서울과 지방도 서울이 중심지고 지방은 중심지가 아닌 거죠.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로 강남과 비강남도 그렇죠.

C : 부산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서울 애들이 “시골 언제 가냐?”라고 물어봐서 자기는 부산이 시골이라니 너무 깜짝 놀랐대요.

A : 관건은 성차별처럼 일대일 대응으로 하나의 개별 표현이 정말 비하적이다 같은 것이 아니고, 문맥상의 요소와 사람들이 인식하는 작동의 기제가 굉장히 심리적인 것 같아요. 고향이 강원도인데 서울 위쪽에 있는데도 ‘시골 언제 내려가니?’ 하면 ‘내가 서울을 내려오지, 무슨.’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C :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비(非)’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A : 그렇죠.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인지시키느냐가 문제죠.

사회: 이런 것들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보고서에서 큰 비중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B : 보고서에서 공공 언어인 신문 기사나 뉴스를 하다보니까 그냥 서울행 부산행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나타난다면 더 넣을 수 있겠죠.

A : 그리고 배열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안아산역 이름 정할 때 난리 났었잖아요. 천안·아산, 아산·천안, 연고전·고연전에 서도 그렇지만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경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특정 지역을 중심과 비중심에 놓게 되면 계속해서 상대적인 논리로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C : 선진국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미국 등 선진국이라고 절대 이야기 안하고 미국·일본 등 이라고 하니까요.

A : 그리고 독일·미국으로 절대 안 하죠. 언어 기술의 다양성을 포함하여 다루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 : 결국은 지역적인 차별적 표현은 어떤 중심이 되는 것과 중심이 되지 않는 것, 이 스펙트럼에 따라서 대구가 서울과 제시될 때는 서울에 비해서 비중심지이기 때문에 대구가 시골이 되는 것이지만, 다시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범주로 다뤄지면 ‘대구·경북’이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것을 앞에서 다루고, 이런 세부적인 것을 다루

면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즉, 중심과 비중심, 주류와 비주류가 계속 해서 상대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C : 그래서 부산이 시골로 불림 받는 것을 처음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것이죠.

A : 나름의 중심이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중심이 아니니까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군요.

C : ‘비(非)’를 붙여서 분화시키는 것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A : 그래서 중심과 비중심이 기준이 되는데 언어적으로는 거기에 중심에는 그냥 그대로 쓰지만 중심 아닌 데는 ‘비’가 붙는 것이죠.

B : 서울하고 지방은 다르지 않나요? 이게 대안으로 가면 아무리 대안을 제시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서울, 지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 문제인거죠.

사회: 표현보다는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라는 것이군요.

B : ‘시골이라는 말이 왜 왜 부정적이냐, 나는 시골 그러면 정겹고 포근한 느낌을 받는데 왜 시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하느냐’고 하지만, 지방 사람은 그 의미에 예민한 거죠.

C : 그런데 듣는 사람이 차별적으로 느끼면 차별적 어휘라고 말하잖아요?

B :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결국은 의식의 문제라서 지나치게 언어를 뭔가 규범화하고 자꾸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A :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대안이 된다고 하면 그 대안은 용어 자체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의식이나 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탈북자, 새터민’ 이런 것은

새롭게 범주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서울이나 지방은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서울이 있고 나머지가 지방인데 그 자체를 쓴다고 해서 그게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C : 이게 결국은 의식이랑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고 소외 계층이랑 관련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이라면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명명이 되면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쁜 말로 해도 내가 그 사람과 다른 누군가로 불리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사회: 이렇게 저렇게 묻히는 게 덜 차별적인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명명해서 범주화를 해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특정 대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경우라든지요. 그러니까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해야지, 일반적인 ‘국제결혼 여성’과 구분이 되고,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든가 여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를 잡을 때도 필요하고요.

C : 대안 대부분이 국제결혼이나 다문화의 한계를 지적하지만 그렇게 대안을 냈을 때 당사자들이 원하는 그런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A : 당사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이름이 없어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명명해서 어떤 것들은 명세화 하는 데 언어가 쓰인다고 한다면, 어찌됐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르는 의미를 줘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또렷하게 그것을 택했을 때 그 부류만 묶일 수 있는 그 명명이 필요한데 그 명명이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을 쓰게 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인 것 같아요.

C : 좀 더 부드러운 명명이 되려면 어떤 정확한 명사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대안 중에 나왔던 것처럼 풀어서 제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회: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풀어서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죠. 하지만 공문서나 신문 기사에서 줄줄 풀어서 ‘베트남 등 동남아 권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한 여성’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B : 명명은 어차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A : 그러면 보고서에 대안을 제시할 때,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되, 이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 어떤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언어적인 정책이 긴요하게 요청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어떨까요? 언어적으로 아무리 변화해도 어차피 가치가 포함되어 오염되기 때문이에요.

A : 55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지방 사립대라고 해도 충분한데 비수도권 사립대라고 해서 수도권과 대립 구도를 드러내는 사례인 것 같아요.

C : 지방 사립대라고 할지라도 과연 중립적인가는 층위가 어느 층위에서 분석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정보인데 ‘조선족’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한국계를 넣는 다든지, 이것도 일단 선택인데, 그렇다면 차별을 규명하기가 모호해지잖아요.

사회: 그런데 저희 관점은 ‘지방대’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데, 차별적 의도를 가지고 비하의 의도를 담은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사에 보면 ‘지방대의 재정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지방대는 어려운데,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논지예요.

C : 비하가 아니라, 지원을 하기 위한 맥락이니까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사회: 그런 기사를 많이 보잖아요. “BK사업 등이 수도권 유명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대학에도 균등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A : 잉여적이냐 잉여적이지 않느냐를 기술하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의도 부분도 자료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수도권 수도권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정보가 전달되는 잉여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것도 보는 거죠.

B : “지방에서도 명품 대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잉여적인 것이 아닌 거죠.

C : 잉여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도상은 차별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B :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면 ‘지방에서는 명품 대학이 나올 수 없다.’가 전제이기 때문이에요.

C : 제가 기자라면 화젯거리가 되냐 안 되냐의 여부는 “골프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한국계더라” 식으로 한국계를 붙이는 거잖아요. 기사화 했다는 것은 선택해서 판단했다는 건데, 잉여적인 정보를요.

A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의 언어는 공공제이기 때문에 매체적 표제어의 소비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공언어로서 공공재 입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B : 60쪽에 있는 서울 강남구, 이진 진짜 강남구 같은데요.

사회: 즉, 강남구를 지칭할 때는 강남 3구라고 하든지 통째로 강남권이 라고 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C : 강남권, 비강남권 같이 가면 문제가 되는데 뒤에서는 강남3구, 강남권이라고 나오니까 이것을 조금 정밀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A : 배열의 문제에서 함께 다루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회: 5번 같은 경우는 빨까 고민을 했는데요. 달동네의 대안을 생각해 보니까 '빈민 거주 지역', '빈민촌'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상처를 안 주면서도 완곡하면서도 비유적인 표현이 달리 없죠? 사실 '달동네'는 어감도 따뜻하고 잘 만든 말 같죠? 그렇게 용기종기 서로 정을 나누면서 사는, '빈민 거주 지역'이라고 하면 상당히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C : 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 그래서 이것은 문제다. 대안으로 바뀌야 된다는 것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C : 말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요?

사회: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빈민 지역, 빈곤 지역'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특정 지역을 함께 묶어 '우면동 비닐하우스촌', '청계천변 판자촌' 이런 표현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지역의 일부에만 비닐하우스촌이 있겠죠. 그렇다고 여기에다 비닐하우스촌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비닐하우스촌'이라고 정보를 주어야 하는데.

A : 이 기사처럼 '그동안 무허가 판자촌으로 불려온 포이동 266번지에 주민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 풀어 쓴 거죠. 무허가 판자촌이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포이동 266번지라는 그냥 번지수를 넣어서. 전략상 신문 언어에서 못 박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명명하지도 않으면서, 간접적이면서도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그리고 이것도 20년 한을 풀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안을 주고 상처를 안 주게 썼네요.

A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인식이 있으면 서술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단순히 표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단어나 구성의 표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술 전략까지 바꿔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 네. 7번으로 넘어가죠. ‘새터민’은 정작 그들이 꺼려하는 측면이 있던군요. ‘탈북자’는 굉장히 정치색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는 것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B : 문제되는 것은 ‘새터민’은 정착을 한 사람이고 탈북만 한 사람을 가리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회: 탈북해서 중국에 떠도는 사람은 ‘새터민’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 남한에서 지원을 하려면 ‘새터민’이라는 명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한에 터를 잡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새터민’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했을 때는 중립적이기는 하지만 가리키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A : 북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탈북 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준다고보다는 ‘탈북 정착민’ 이런 식의 아주 중립적인 것으로 사실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무부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공식 용어로 하고 있잖아요. ‘새터민’은 당사자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탈북 정착민’과 ‘탈북자’가 어떨까요?

사회: 그렇죠. 근데 우린 우리입장에서 ‘탈북자’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조금 바꾼 거죠.

A : 저는 여기에 ‘결혼이주여성’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C : 맞아요. ‘이주노동자’ 문제하고 ‘결혼이주여성’하고 묶어서 사실은 여기 같이 들어가야 해요.

A : 그러니까 이주의 목적이 다른 것뿐이죠.

C : 이 사람은 정치적인 탈출을 한 거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동을 하게 된 거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거고, 이렇게 세 부류의 이주민들이거든요.

사회: 정치, 경제, 결혼. 이주노동자는 생각을 했었는데 특별한 상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C : 옛날에 ‘동남아 노동자’ 이런 말 많이 썼었는데 혹시라도 지금도 쓰이는지 모르겠네요.

사회: 기사를 찾아서 맥락상 조금 비하성이 느껴지면 함께 다루죠.

C : 공식 명칭은 ‘이주 노동자’로 하고 있을 텐데, 그것 말고도 예전에 쓰던 걸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서 쓰고 있다 이런 걸 다루면 어떨까요?

B : 자녀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C : 자녀 문제로 가면 인종 문제랑 더 밀접해 질 수 있다는 거죠.

사회: 이게 인종하고 민족이 엮혔어요. 혈통, 인종, 민족을 구분해서 다루는 것이 힘들어요.

C :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엮힐 수밖에 없어요. 지역이랑도 엮히는 거죠.

B : 일단 이주자들을 묶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녀들은 이미 여기서 태어나서 학교 이런 데서 차별을 받는 거니까요.

A : 어른들은 명명이 가능하지만 자녀들은 그냥 ‘다문화 가정 자녀’라고 하고, 장면에 따라서 ‘이주 노동자 자녀’, ‘여성 결혼 이민자 자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C : 근데 ‘이주 노동자’ 중에 상당수가 조선족 아닌가요? 이 경우는 지

금 어차피 완벽한 이주라고 보긴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이기는 한 데요.

B : 그리고 왜 ‘코시안’에서 문제가 되냐면 정말 이젠 우리의 문제인데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국적이 몽골이나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국제 아동법상 현재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 충분한 인간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코시안’ 같은 경우는 혈통은 다른데 엄연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명명이 이루어진 것 아닌지요?

A : 명명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아직 섬세하게 접근을 못 했다는 거죠.

C :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이주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회: 당연히 이주가 아니죠.

C : 근데 그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 안에 들어와야 하고.

B : 심지어 비율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사회학 세미나를 그때 한번 갔는데 단기 체류도 이주의 하위 범위에 드는 거래요. 노동의 상품으로 국제 경제가 커지면서 이주하게 되고 결혼을 하면서 이주하게 되고 결혼도 사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주하게 되고.

A : 근데 저는 ‘외국인 노동자’를 다룰 때 생각한 것은, 외국인은 사실은 우리나라 이외의 사람인데 동남아 쪽이나 몽골 같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의 외국인만을 생각한 거예요. 외국인 자체는 차별 표현이 아닌데 우리가 쓰는 맥락에서는 이미 의미역 자체가 차별적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 ‘외국인 강사’라고 하지 않고 ‘원어민 강사’라고 하잖아요.

사회: 원어민 강사는 ‘native’ 이것을 직역하면서 강조하는 것 아닐까요?

A : 문제는 여기 언어에 대한 경제적 차별이 들어가는 게, 우리는 보통 언어는 영어를 생각하고 원어민 강사 모집에 흑인이 왔을 때는 당황하잖아요. 원어민은 백인중에 영어를 쓰는 이렇게 여기고, 외국인은 동남아, 몽골, 조선족 이런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의미 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인이라고 하지 외국인이라고 하진 않죠. “벽안의 신부 시골 촌장 되다.” 이렇게 하지 ‘외국인 신부’라고 하지는 않죠.

B : 또 지금 인종 문제에 ‘-계’가 들어가 있는데 ‘-계’는 원래가 민족주의에 들어가야 되고 ‘라이파이한’을 맨 밑에 넣으셨는데 ‘라이파이한’은 혼혈아 표시한 다문화 아동과 함께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A : 보다가 걸렸던 게 토종이라는 말이 역차별적인 것 같아요. 토종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닌데요. 우리 토종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사회: 토종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사람에게 쓰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C : 사람한테 토종이든 잡종이든 쓰는 게 아닌데 공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죠.

A : ‘토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미 ‘토종이지 않은 한국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혼혈아는 피가 섞여 있다 정도인데, ‘혼혈아’보다 ‘토종’이라는 표현이 더 차별적인 것 같아요.

C : ‘순수 한국인’은요?

A : 그것 역시 이미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C : 맥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문제인 거죠. ‘혼혈아’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구는 국기를 달고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가 다 한국 사람이더라. 이

런 것은 국적은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혈통은 한국 사람이니까요.

B : 그러니까 그것도 다 기자는 이야깃거리라고 보는데 그게 중요한 상황이나 아니냐가 문제죠.

C : 근데 이제 배우 같은 경우 그 배우가 순수 혈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기삿거리가 되죠.

A :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다원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토종, 비토종으로 나누는 거지 베트남계 한국인 이렇게 하지는 않죠.

C : 우리는 토종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정보가 이야깃거리가 되고 기사화 될 만한 정보라는 자체가 순수한 혈통주의라는 의식을 깔고 있다고 할 때 그게 차별주의 의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계가 참 어렵다는 거죠.

사회: 사실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때 우리는 통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초등학교 때만 해도 우린 한 핏줄이라고 계속 배웠죠.

B : 이거는 기사 자체가 동양에서 할리우드에 가서 성공한 것들을 다루겠다는 점 자체가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예술계에서 유대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유대계들의 감독이나 영화배우나 작가가 누가 있나 꼭 쓰고 있는 것이라면 유대계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사회: 98쪽에 제가 중앙일보 신문 기사 사례를 찾아 봤는데 선생님께서 제시한 대안으로 하듯이 ‘이누이트’하고 괄호로 ‘에스키모’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넣었어요. 100페이지도 토착 미국인 아메리카원주민이라고 쓴 예가 한국일보라든지 중앙일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 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라이파이한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주면 좋죠. 라이파이한은 사실 마

땅한 대안이 없어요.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C : 지난번에 베트남전 참전 이렇게 하자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런 방법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A : 그렇다면 문제가 참전했다가 와서 낳은 애들은 뭐라고 해야 하는지.

C : 이것이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건설업체들에도 이런 아이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버려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공론화가 되면 아이들을 부르는 뭔가가 필요해질 텐데 어떻게 부를지 애매하죠.

사회: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 차별 표현 사례 분석

공공 언어의 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 표현을 수집한 결과, 기존의 성별이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 표현에 비해 명시적으로 차별 표현이라고 규정할 만한 것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더불어 동일한 표현 이더라도 맥락에 따라 차별 정도의 여부가 상이하였다. 이러한 맥락 의존성은 마땅한 대안 표현을 찾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여기서는 1차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단일 용어에 대해 차별적이다 아니다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차별적이거나 비객관적으로 사용된 경우에서부터 차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적은 경우까지, 차별의 정도에 따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맥락이 제거된 하나의 표현을 차별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해당 표현이 맥락 속에서 나름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흑백의 이분법적 관점으로 취하거나 버릴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안 표현도 해당 차별 표현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표현을 찾거나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정도를 약화하거나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료 수집원들이 찾은 일차 자료를 대상으로 한 1, 2차 전문가 협의회에서도 이와 동일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 지역 차별 표현

지역 차별 표현은 일상의 언어생활에서는 종종 찾을 수 있으나, 언론과 같은 공공언어에서는 최근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되어서, 직접적인 표현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지역 차별 표현의 전형적인 사례로 ‘비

(非)―’를 붙여 중심과 비중심,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해당 지역에 속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행정 구역의 경계가 아닌 인간의 가치 판단의 경계로 구획하여 차별적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 ‘비강남’, ‘비서울’, ‘비수도권’, ‘비서구’ 등이 있다. 다음의 예는 학교 모집 요강인데, ‘비(非)’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경우이다.

광주를 제외한 **비서울권** 지역의 6개 자율고는 내신 성적을 선발 과정에 직접 반영한다. 부산 동래여고·해운대고와 대구 계성고는 내신 성적 등으로 2배수로 압축한 뒤 추첨으로 선발하고, 경기 안산동산고와 경북 김천고, 충남 천안북일고는 선발 과정에서 추첨을 완전 배제하고 내신·면접 등의 점수 순서대로만 선발하기로 했다.

이처럼 선발 방식이 서울·광주와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이 다르게 정해짐에 따라, 자율고 입시 전형의 특징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송원고를 제외한 **비서울권 자율고**에서는 내신이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학교명	정원	공학	지원 가능 지역	일반전형 선발방법
부산	동래여고	미정	여	부산·인천·대전·경남	1단계(2배수):내신 2단계(최종):추첨
	해운대고	미정	남	·울산·제주·전남 ·전북·강원·충북	
	대구 계성고	350	공학	대구·대전·경북 고령군 다산면	1단계(5배수):내신 2단계(2배수):2·3학년 교과 성적 및 교과외성적 + 면접 3단계(최종):추첨
	광주 송원고	280	공학	광주 + 담양군 고서·한재중, 장성군 남중, 나주시 남평중	학교가 정한 지원자격을 충족한 응시자 중 추첨 선발
	경기 안산동산고	640	공학	경기	내신 성적 250점 만점(전과목 내신 200+국·영·수·사회·과학 10점씩 가중치 적용)
	경북 김천고	280	남	경북	1단계(150%):학생부 300점 2단계(최종):학생부 300+면접60
	충남 천안북일고	267	남	50%는 전국단위 50%는 충남	우선선발(50%):학생부 300점 2단계 선발(50%):학생부 300+자소서 30+면접70
※서울 지역 13개 자율고는 서울·인천·대전·경남·울산·제주 출신 지원 가능. 지원자격(내신 고입석차연명부 50~100% 중 학교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완전 추첨 선발.					

[조선일보] 2009. 9. 25.

이와 더불어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서울로 올라가다’, ‘여의도 면적의 두 배 크기’ 등과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지역 차별 표현의 사례로 다루었다.

1) ‘비(非)-’ 관련 표현

‘비(非)-’란 ‘아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주로 ‘비공식, 비무장, 비민주적’ 등과 같은 경우에 사용된다. 이 ‘비-’를 특정 지역 앞에 붙여, 그 지역 외의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차별하여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가) 강남 / 비강남

□ 차별적이거나 비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강남’과 ‘비강남’으로 서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시각에 문제가 있다. ‘강남(江南)’이란 ‘한강이남 지역’을 가리킨다. 엄밀히 따지면 한강 아래쪽의 모든 구는 강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강북(江北)’이라고 한다. 하지만 언론의 표현을 보면, ‘강남’은 일반적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강남 3구’를 의미하고 있다. ‘동작, 관악, 구로구’가 한강 이남에 있다고 하여 ‘강남’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강남’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들어 간 ‘강남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서초구와 송파구를 아울러 ‘강남’이라고 한다. 주로 부동산 기사나 교육 관련 기사에서 이런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사전적 의미도 아니고 행정 구역의 편성도 아닌,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특이한 표현으로 자리 잡아 통용되고 있다. 세구를 ‘강남’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나머지를 ‘비(非)강남’으로 통칭하

여 비교하는 데 있다. 또는 ‘강북’과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를 드러내는 것도 문제이다.

“강남-비강남권 아파트값 격차, 2배로 벌어져”

올 들어 강남권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강남권과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 차이가 2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강남권 3구의 아파트값은 3.3평방미터당 2천 915만 원으로 비강남권 22개구 아파트값, 1천 446만 원의 2배를 넘었습니다. 비강남권 대비 강남 아파트값 비율은 2006년 5월 2.52배까지 벌어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지난해 말에는 1.86배로 떨어졌습니다.

[SBS 뉴스] 2009. 9. 10.

확 바뀐 외고 입시... 내신이 사실상 당락 결정

결국 올해 입시는 학교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반면 기존 강남권 학생들과 같이 학교 내신이 다소 나쁘더라도 영어 듣기와 구술 면접 성적으로 외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사실상 사교육 특구가 아닌 비강남권 학생들도 학교 내신 관리가 철저하다면 외고 입학의 길이 열렸다고 보면 된다.

[조선일보] 2009. 6. 22.

“강남 봉투는 두둑해”, 예식장서 축의금 ‘슬쩍’

서울 강남 일대 예식장을 돌면서 축의금을 훔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 강남으로 범행 무대를 옮겼는데, 축의금 액수가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입니다. 점잖은 차림새의 한 남자가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부지런히 하객을 안내합니다. 방명록을 내주고

식권을 챙겨주더니 축의금 봉투까지 받아 넘겨줍니다. 잠시 후 한 하객이 봉투를 여러 개 내놓자 만지작대더니 봉투를 들고 슬쩍 자리를 뜹니다. 20만 원씩 든 봉투 16개를 챙긴 이 남자는 식권까지 받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SBS 뉴스] 2009. 8. 4.

어린이 생일파티 문화 어디까지 왔나
전문 플래너·케이터링 서비스 등 비용 상당

강남에 사는 구모(45.여)씨는 "미국에 있을 때 파티 플래너 등이 생일 파티를 연출하는 것을 보고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 이미 이런 문화가 퍼져 있었다."고 말했다. 파티 플래너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생일파티가 큰 인기를 끄는 것은 세심하게 연출된 파티가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풍선이나 리본, 조명 등을 이용해 화려하게 꾸며진 파티 장소에서 아이들이 마술 쇼, 페이스페인팅, 레크리에이션 게임 등을 즐기다 보면 한두 시간은 금방 지나가게 된다.

(중략)

비강남지역은 생일이 비슷한 시기에 있는 4~5명의 학부모가 모여서 파티를 치러주기도 하지만, **강남**에서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파티를 가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일부 부유층은 특급호텔이나 상류층 전용클럽을 이용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천만 원이 넘는 호화 생일파티를 치러줘 보통 엄마들의 기를 죽이고 있다. **대치동에 사는** 주부 이모(38)씨는 "생일파티를 제대로 하려면 비용이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간다. '대전' 사람으로서 부담이 크지만 아이 기가 죽을까 봐 안 해줄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대전' 사람은 '대치동에 전세 사는' 사람의 신조어로, 아이 교육을 위해 **강남 지역**에 전세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서울 연합 뉴스] 2009. 7. 29.

“전세? 왕십리에서 상계동까지 아예 없어”

강남은 '3억 이상' 강북은 '전세 없음'

[부동산 사장 인터뷰 부분] "시세가 적절한 거죠?"라고 말하자 일장 연설이 시작됐다. 사장의 논리는 이랬다. “이제 집값이 차별적으로 오른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고 있지 않나? 강북에 집 사면 이제 못 내려온다. 한 번 강북에서 시작하면 애들까지 평생 **강북 애** 되는 거다. 어딜 사도 **강남 3구**에서 해결해라.”

아직 자녀 계획은커녕 결혼 계획도 없었지만 이 말이 주는 울림은 상당했다. 강남에 집을 살 돈이 없으면 내 애는 평생 '**강북 애**'라니. (이건 21세기형 카스트 제도의 한 계급인가? 아니, **강북 애**가 뭐가 문제인데?)

[오마이뉴스] 2009. 8. 16.



<그림2> '강남' 관련 자료 사진

□ 바람직한 표현을 위한 제언

‘강남과 강북’, ‘강남과 비강남’의 이분법적 시각을 드러내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 사전적 의미도, 행정 구역 명칭도 아니면서 특정 지역의 특색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강남’이라는 지칭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자제해야 한다. 대신 ‘서초구’, ‘강남구’와 같은 정확한 행정 구역상의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 강남과 비강남이라는 불필요한 구분으로 속칭 ‘비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기사에서도 정확하게 행정 구역 명칭을 사용하고, 교육 기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구의 □□고 등 학교의 사례라고 밝혀서 소개하면 된다.

강남구, 부동산 투기·경제범죄의 온상지

서울 **강남구**가 부동산 투기와 사기·배임·횡령 등 경제범죄의 온상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서울 시내에서 지난 3년간 부동산 투기사범과 사기·배임·횡령 등의 경제범죄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남구**였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9. 10. 13.

‘강남’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피하기 위해, ‘강남 3구’로 밝혀 적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는 강남 일대를 통칭하여 ‘강남권’ 정도로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강남’이라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다음과 같이 ‘강남권’으로 표현하면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다.

강남 3구 상가라도 다 비싸지는 않아

상가거래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상업용 건축물 거래량은 올해 이후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여 이 지역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강남 3구의 상업용 건축물 거래건수와 거래 면적은 1월 257동, 31,000㎡에서 8월 988동, 370,000㎡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YTN] 2009. 10. 26.

강남권에 중·소형 주택 벨트 11만 가구

정부가 서울 강남권에 2곳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강남(江南) 외곽의 그린벨트가 2012년 이후 '중소형주택 주거벨트'로 변모할 전망이다.

[조선일보] 2009. 10. 20.

일부 사례로 기사를 쓰면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네. 아이 고등학교는 강남으로 보내야겠어.'와 같은 암묵적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표현이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양상을 초래하지 않는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서울 / 비서울(지방)

□ 차별적이거나 비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서울 외 지역을 통칭하여 '비서울'로 표현하는 경우도 객관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나라마다 수도가 있고, 그 외의 지역이 있지만 수도와 그 외 지역을 구분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울'과 '비서울'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의

예의 경우에도 ‘서울’과 ‘비서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엄연히 행정 구역의 경계가 다른 곳까지 ‘서울권역’으로 지칭한 점이다. 기존 행정 구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을 굳이 ‘서울’과 ‘비서울’의 대립 구도로 기사를 보도하면서, 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의견까지 덧붙였는데, 기사를 대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오는 2009년 문을 여는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비율이 **서울 권역** 52 대 **비서울 권역** 48로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최소 60대 40의 비율을 주장했던 수도권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성문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로스쿨 정원 비율을 서울 권역 52% 대 서울 외 권역 48%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 개원하는 로스쿨 총 정원 2,000명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등 서울 권역**에 1,040명,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 등 지방 4개 권역에 960명이 배정될 전망입니다.



[YTN 뉴스] 2007. 12. 14.

‘서울’과 ‘비서울’의 관계는 ‘서울’과 ‘지방’에 대한 차별로도 나타난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에서 두드러진다. 지방에

도 대형 국립대 등 훌륭한 대학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서울 소재’ 또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으로 구분하는 차별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서울대만 반기는 ‘국립대 법인화’

“지방대 등록금 사립대 수준 될 것”

서울대가 지난 8일 총장의 권한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서울대 법인화안’을 확정함에 따라,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대는 2011년 3월까지 법인화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다른 국·공립대들이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겨레신문] 2009. 7. 17.

다음의 사례는 ‘지방대 출신이……’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비하하는 경우이다. 특정 대학을 밝히면 되는데, 지방대 출신이라고 표현한 것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표현된 문장만으로 보면, 마치 ‘지방대 출신은 해외 명문 대학의 교수가 되기 어렵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지방대 출신이 캐나다 명문대 교수됐다

배재대 졸업 최○○. 더 타임誌 선정 세계 20위 대학

대전 지역의 한 사립대를 나온 40대 박사가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의 교수로 임용돼 화제다. 18일 **배재대**에 따르면 이 대학 생명유전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캐나다 맥길대(McGill University)에서 2001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영준 박사(41, 87학번)가 지난 4월 맥길대 생물자원공학과(Department of Bioresources Engineering) 교수로 임용됐다.



다음 예시를 보면,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가 ‘지방대’가 아니라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수도권 대학’이라고 하고 있다. ‘지방 대학(地方大學)’이란 ‘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강원대’가 ‘수도권 우수의 대학’으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옳은 표현인지 재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방 소재 대학에 수도권과 연결된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항공 노선이 신설되면 이를 모두 수도권 대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강원대, 이제 지방대 아닌 수도권 대학”

강원대가 바빠 움직이고 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학교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다.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거점 국립대학의 역량에 맞는 위상을 찾고, 나아가 수도권 유수의 대학으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강원대는 서울과 가깝지만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고 강원도에 소재한 대학이라는 심리적 거리감으로 충청권, 특히 천안권 대학보다 더 먼 대학으로 인식됐다. 강원대는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에서 43위

(2006년), 36위(2007년), 35위(2008년) 등 지속적으로 순위가 올라가고 있으나 일반인들에게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재연 기획부처장은 “강원대는 연구 성과와 우수한 교육환경,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장점 등 종합적인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며 “고속도로 개통으로 강원대는 **더 이상 지방대가 아니며, 수도권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9. 7. 2.

이렇듯 대학을 무분별하게 구분하는 표현은 신문 기사뿐 아니라 일선 중고등학교의 대학 배치표 등에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 등과 같이 서열화하여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대학의 소재 위치에 따라 왜곡된 서열 정보를 무의식중에 고착화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인터넷과 같은 비공식적 소통 공간에서는 ‘지잡대(지방 잡대)’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사용되는데, 소속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이러한 극단적 표현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칼럼]토목경제, 지방이 먼저 망한다.

대구의 몰락은 바로 이 고속철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SOC 사업이라고 전국에 격자형 도로를 계속해서 신설하면, 결국 서울만 승자가 되는 게임으로 진행된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발판 역할을 해주던 것이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에 대한 규제였는데, 이것도 치우겠다니, 그냥 내버려두면 지방대가 ‘**지잡대**’는 슬픔 이름으로 불리듯이, 지역 경제도 언제 ‘**지잡**’ 시리즈로 몰락할지, 마야호로 시간문 제일 뿐이다.

[프레시안] 2008. 11. 3.

출연자1 : 너무 행복했어요. 호텔방 같았고, 당구대 뒹뒹하면서도 “아 너무 행복해, 난 서울 사람이니까.” (모두 웃음)

사회자 : (공감하는 듯) 사실 지방 사람들은……



[MBC 황금어장 - 무릎팍 도사] 2009. 4. 29.

□ 바람직한 표현을 위한 제언

‘비서울’이라는 표현은 서울 외 지역을 명확히 가리켜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서울’과 ‘그 외 지역’을 대립적 관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맥락에서는 ‘비서울’이라는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행정 구역 명을 그대로 드러내어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도권 소재와 지방 소재의 지리적 구분을 명시해야 하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의

구분은 삼가야 한다. 즉, 지리적 구분 외에 서열화를 나타내거나 상대적 낙후성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소지가 있다면 그러한 이분법적 구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대신 대학교의 정확한 소재 위치와 대학 명을 밝혀 제시하면 된다. '지방대 출신이 케나나 명문대 교수되다.'라는 제목은 대상 인물의 우수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대에서 해외 명문대 교수가 나와서 의외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낄 소지가 있다. 즉, 이 기사의 제목은 대상 인물의 뛰어난 점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지만, 소속 대학의 구성원 또는 이와 같은 지방 소재 대학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역기능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면담: 김인형 (27세, 여성, 제주도 출신, 대학 강사)

● '지방 대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보고서의 대안 표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방대'를 다니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사실 저도 '지방대'라는 표현을 써서 뭐라 말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신문 기사 사례는 정말 지방대를 수도권 지역의 대학보다 평가 절하하는 느낌이 많네요. 사실 저도 그렇게 썼고요. 그러니까 대안은 정당한 듯합니다.

● 제주도 출신이어서 혹시 그에 따른 차별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선 제주도는 섬이라는 데서 오는 표현이 차별적이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섬사람', '섬 여자들은 어떡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표현은 단어 수준의 것이라기보다는 대화 내용에서 많이 드러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아직도 말 타고 다니냐?", "인구가 얼마냐?", "얼마나 작냐?"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러한 질문에 항상 서울보다 제주도가 훨씬 크다며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역차별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도 이외 지역 사람들을 '육지사람'(심하면 '육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뭔가 이해 타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사기 기질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제주도 사람들은 대부분 애항심이 너무 강해서 제주도민인 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저 제주도 출신입니다.”라고 일단 밝히곤 합니다.

다) 수도권 / 비수도권

□ 차별적이거나 비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앞서 논의한 ‘강남과 비강남’과 같은 맥락의 문제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통칭하여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대학 순위의 범주에 ‘비수도권 사립대’와 같은 구분을 도입한 것은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방에서도 '명품대학' 나올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많은 명문대학이 교육환경 좋은 지방에 있고, 한국에도 그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림대는 이번 평가에서 **비(非)수도권 사립대**(종합대) 중 가장 높은 순위(국내 19위·아시아 103위)에 올랐다.

27년간 연세대 교수를 하다 지난해 한림대에 부임한 그는 “**지방대가 서울 대학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다**,”라고 했다.

— **수도권 대학들이** 단지 위치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고 보나.

"세계의 명문대학은 대부분 아늑한 전원의 중소도시에서 발전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서울의 학교들이 비대화돼 모든 걸 서울로 빨아들이고 있다. 한림대는 지역 인재를 키우고 **수도권 학생**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만큼 '멋있는 지방대'를 만드는 게 내 꿈이다."

[조선일보] 2009. 5. 29.

자율형 사립고, 내신 나쁘면 입학 불가..'사교육 조장' 우려
수도권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이 중간 이상인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지방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내신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2009. 6. 5.

□ 바람직한 표현을 위한 제언

국립과 사립의 구분은 설립 목적에 따른 차이의 비교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은 소재 위치에 따른 차이의 비교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 연구, 산학 교류 등 대학의 핵심 역량과는 무관한 소재 위치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대학별 서열화를 조장하는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한꺼번에 비하하는 '비수도권'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특정 지역 앞에 '비(非)―'를 붙여 외부인을 가리키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외부에 속한 사람을 편하게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이나 지역감정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보가 그 자신 장담하고 있듯 지역 정서를 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전라도 출신 후보여서가 아니라, 바로 경상도 중에서도 부산 출신 후보이기 때문이다. 만일 한나라당에서 광주나 목포 출신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선다면 그야말로 망국적 지역감정이 증언을 고하는 때가 될 것이다.

[오마이뉴스] 2002.04.16

김 의원은 무소속 연대에 대해 "영남은 무소속 출마를 거의 굳혀가고, **비경상도 지역**은 친박 신당을 만들자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지막 조율을 거쳐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는 결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8.03.16

특히 여권 내부, 여야, **총청권과 비총청권** 등으로 갈려있는 세종시 문제는 험난한 여정을 맞게 됐다. 여권의 정치 일정도 일정 부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 같다. 승리를 주장할 순 있지만 야권도 축배만 들 처지는 아니다. 대통합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4월 재·보선의 정동영 의원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건재를 과시한 건 야권 내 주도권 경쟁을 복잡하게 만들 요소다.

[중앙일보] 2009.10.29

라) 서구(선진국) / 비서구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서구(西歐)’는 ‘서양을 이루는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선진국(先進國)’은 ‘다른 나라보다 정치·경제·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를 가리킨다. 이에 대비하여 기준보다 뒤떨어진 나라를 ‘후진국(後進國)’이라 하고, 중간에 속하는 나라를 ‘중진국(中進國)’이라고 한다. ‘서구 선진국’이라는 말은 기존의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선진국들을 통칭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예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아시아 경제는 **서구 선진국** 경제와 달리 금융 부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 경기의 위축에 따른 성장의 부진을 우려한 나머지 선진국보다 강도 높은 유동성 팽창 정책을 시행했다. 중국은 이미 올해 들어 8월까지 작년 국민총생산(GDP)의 40%가 넘는 신규 유동성을 풀어 내수를 부양했다. 한국은 중국 내수 부양의 대표적인 수혜를 입은 국가 중 하나이다. IT(정보기술)·자동차·디스플레이·무선 통신기기·합성수지·석유·철강 제품 등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었다.

[조선일보] 2009. 10. 6.

서구 선진국의 기술을 물려받아 제품을 생산해 온 인도 기업들이 자국 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품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 보도했다.

[경향신문] 2009. 10 .21.

□ 차별적이거나 비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앞선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서구’와 ‘비서구’라는 표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될 내용에 ‘서구’와 ‘비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문화화의 정도나 낙후 정도를 암시할 수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더불어 이러한 표현을 다음의 사례와 같이 ‘베트남, 이스라엘, 몽골’ 등의 특정 국가명과 함께 사용하고, ‘정전이 잦아 촛불을 켜다.’라든가 ‘폭탄 테러가 있다.’ 등과 같이 후진성이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등 영어권 국가나 중국·일본 등으로 몰렸던 대학생들의 해외연수가 **베트남, 이스라엘, 몽골 등 익숙지 않은 국가들**로 확대되고 있

다. 언어학습이나 앞선 시스템을 경험하겠다는 대학생들의 목표가 이전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른바 ‘틈새 국가’ 쪽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정전이 잦아 촛불을 켜면서도, 폭탄 테러를 목격하면서도 이들은 기를 쓰고 간다. 서울대 대외협력본부 성정현 씨는 “예전엔 비서구 국가에 가는 학생들이 없었지만 요즘은 조금씩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 2008. 9. 2.

서구 출신인데도 비서구적이고 친자연적인 작품 세계에 천착한 그는 2001년 방한해 전남 화순군 운주사를 둘러본 감흥을 담은 시 ‘운주사, 가을비’를 썼다. ‘고요하고 정겨운/인사동의 아침/광주 예술인의 거리...번데기 익는 냄새/김치/우동 미역국/고사리나물/열열한 해파리냉채/심연에서 솟아난 이 땅엔/에테르 맛이 난다’(‘운주사, 가을비’ 중에서)

[동아일보] 2008. 10. 10.

정치·경제 부문뿐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앞선 나라와 뒤떨어진 나라가 있으니 선진국 또는 후진국이라고 지칭해도 무리가 없겠으나, 수영과 피겨스케이팅과 같은 특정 스포츠 종목을 ‘서구 선진국의 전유물’로 표현하고, 이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에게 ‘선진국형 스타’라고 표현한 것은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서구’라는 말을 붙여, 유럽이나 북아메리카만을 가리키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서구 선진국, 선진국형 스타들>



앵커 :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10대 선수들의 도약, 참 기분이 좋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수영이나 피겨 스케이팅에서 이제는 당당히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그 비결은 역시 신세대의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기자 : 올 들어 우리 스포츠사에 주목할 만한 이정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세대 선수들이 보여준 놀라운 성취의 비결은 우선 당당한 신체조건입니다. 서양인들에 뒤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을 갖춘 박태환.

[MBC 뉴스테스크] 2009. 3. 26.

또한 선진국과 관련된 표현 중 특정 국가를 언급하여, 기사와 상관 없이 특정 국가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높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기사와 같이, 특정 국가의 구체적인 자료를 언급하며 예를 드는 경우는 그러한 예로 보기 힘들다.

가계 소득 중 한국 교육비 부담 선진국의 3~9배

한국인들의 가계소득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3배에서 9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가계 소비의 특징'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상반기 7.4%에 달해 미국의 2.6%, 일본의

2.2%, **독일** 0.8%에 비해 최고 9배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뉴스] 2009. 10. 19.

그러나 특정 국가의 구체적인 조사 자료와 무관하게 상투적으로 선진국의 예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을 나열하는 것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사례가 그러한 경우인데,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선진국인 것은 사실이나, 해당 국가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선진국의 예로 나열해야 하는지 재고가 필요하다.

문제는 향후 상황이다. 앞으로 1~2개월 뒤가 됐든, 혹은 6개월 뒤가 됐든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야 할 타이밍이 왔을 때 '국제공조'에 구속되지 않고 적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도 누차 강조하고 있듯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회복 속도가 빠른 나라 중 하나인 만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런데도 정부는 "출구전략은 시점, 속도, 순서가 중요한데 속도와 순서는 나라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타이밍(시점)은 국제공조 속에서 이뤄지는 게 모든 나라에게 도움이 될 것"(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만 강조한다.

[한국일보] 2009. 10. 7.

□ 바람직한 표현을 위한 제언

골프, 테니스, 승마와 같은 스포츠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보편화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탁구 등도 외국에서 유입된 것들이다. 특정 종목은 서구 선진국의 전유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유도, 권투, 레슬링 등 격투기

종목과 양궁, 역도 등의 종목을 ‘후진국의 전유물’ 또는 ‘후진국형 스타’라고 부를 수도 없다. 또한 수영과 비슷한 처지인 육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육상을 선진국형 스포츠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종목에서의 선전을 강조하려는 의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종목을 염두에 두어 스포츠에서 ‘서구 선진국’, ‘선진국형 스타’와 같은 비객관적인 표현은 삼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선진국의 예로 구체적인 자료와 무관하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나열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지위를 기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서구’와 ‘비서구’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불필요하게 설정하여 암묵적으로 특정 대륙이나 국가의 후진성을 드러내지는 않는지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2) 기타 표현

가) 서울로 올라가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서울로 올라가다’ 혹은 ‘지방으로 내려가다’라는 표현은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거의 빠짐없이 논의된 사례이다. 즉, 지리적으로 위도가 서울보다 높은 의정부에서 서울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지 않으며, 특정 지역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부여하여 ‘올라가다’와 ‘내려가다’로 표현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다음의 사례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뿐 아니라, ‘자금을 지방으로 내려주다.’와 같은 표현처럼,

사물에 이르기까지 서울과 지방의 이동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죽전 휴게소 부근입니다. 상하행선 양방향에 차량들이 많지만 막힘없이 달리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근처입니다. 역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소 통과 시간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30분, 광주에서는 3시간 20분, 강릉에서는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어제 하루 동안 28만 대의 차량이 서울로 올라 왔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많은 33만 8천 대의 차량이 귀경 행렬에 몰릴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 봤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10시쯤 다시 귀경길 정체가 시작돼 오후 5시쯤 정체현상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뉴스] 2009. 1. 27.

구직자 중엔 ‘전직 사장님’도 있었다. 주 모(47) 씨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다 장사가 안 돼 문을 닫고는 일용직 인부로 변신했다. 가족을 지방으로 내려 보낸 뒤 하루 일당으로 7만~8만 원을 벌며 2~3일을 버티는 그는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경제를 일으켜 달라고 부탁했다. 주씨는 “(구직자들이) 모두 같은 형편인데 사람들이 일이 없어 돌아가는 걸 보면 눈물이 나고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며 “보이는 게 있어야 발을 내디딜 텐데 앞이 너무 캄캄하다”고 울먹였다. 일자리가 없는 현실이 주는 절망감이었다. 윤 장관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윤 장관은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고 말문을 연 뒤 “전 세계가 다 어려워 더 어렵다고 느껴진다. 정부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 하반기엔 경제가 좋아질 것이란 희망을 갖자”고 위로했다. 이어 “추경예산을 하루빨리 편성해 일자리가 없는 사람, 소득이 없는 사람을 도울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일보] 2009. 2. 12.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이 전해지자 지방자치단체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낙후지역인 시·군에 균형발전을 위해 배정되는 지방교부세가 덩달아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국세다. 정부가 이 돈을 받아 다시 **지방으로 내려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 강남 등 부자들로부터 받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낙후 지역으로 분배될 돈도 깎이게 된다.

재정자립도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충남도가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는 모두 2039억 원이다. 이중 재정 여건과 교육 및 복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군에 차등적으로 배정되는 돈이 1364억 원에 이른다. 사회복지 및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일수록 배정되는 액수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오마이뉴스] 2008. 9. 24.

□ 바람직한 표현을 위한 제언

이 표현은 상경(上京), 하경(下京), 낙향(落鄉) 등의 한자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한자어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상경(上京)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옴. ≡ 등락(登落)·상락(上洛)·출경(出京)

¶ 가출 청소년들의 무작정 상경이 문제시되고 있다. 「반」 하경(下京).

하경(下京)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내려옴.

낙향(落鄉) 시골로 거처를 옮기거나 이사함. ¶ 그 선배는 향리로 낙향하여 여생을 조용히 보냈다.

‘서울로 올라가다’와 ‘지방으로 내려가다’의 표현은 지리적인 위도의 차이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서울의 중심성이 언중들에게 심리적 의미로 받아들여져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 이 표현에 대해 위도의 높고 낮음만을 따져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언중들의 자연스러운 언어 관습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불필요하게 서울의 중심성을 과도하게 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서울로 가다.’, ‘대구로 가다.’와 같이 특정 지역의 위상과 관계없이 ‘올라가다’, ‘내려가다’보다는 ‘가다’와 ‘오다’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여의도 면적의 두 배 크기

지역의 면적을 나타낼 때 ‘여의도’의 면적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역 차별에 대한 일부 연구에서 여의도와 같은 서울에 있는 특정 지역을 면적 비교의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예전에 중앙에 광장이 있어 평지였고, 외곽의 경계는 한강과 명확히 구분되어 한눈에 그 크기가 가늠되는 여의도의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면적에 대한 비교가 용이하여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여의도 면적’이라는 표현은 단지 면적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특정 지역의 위상을 높이거나 차별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다만 ‘왜 하필이면 여의도냐?’와 같은 논란의 소지는 없지 않다. 더군다나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여의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전국의 모든 지역의 면적을 설명하면서 굳이 ‘여의도’라는 특정 지역에 비교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점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강화도의 몇 배 크기, 거제도의 몇 배 크기’와 같이 인근 지역의 지명을 모두 동원할 수 없으며, 그 또한 그 지역 외 거주자들이 면적을 가늠하는 데는 동일한 어려움이 있다. 즉,

서울에 있는 특정 지역만을 모든 면적 비교의 척도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면적을 가늠하기 용이하다는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무조건 금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 바람직한 표현을 위한 제언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는 표현은 지역 차별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가늠하기 쉽도록 더욱 친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사례는 관습적으로 ‘여의도 면적’에 갯벌의 면적을 비교했지만, 과연 여의도 면적의 143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사라진 갯벌의 크기가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친절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일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높은 독을 쌓아야만 했던 네덜란드인들도 최근에 독에 구멍을 뚫어 간척지를 갯벌로 만들고 있다. 이들의 갯벌 복원 노력은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꼽힐 정도로 건강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1988년부터 10년간 이뤄진 간척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143배에 달하는 갯벌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엔 서해안의 해안선 40%가 지도에서 자취를 감췄다. 간척 덕분에 얼마간의 땅은 얻었지만 그만큼 생태의 보고인 갯벌을 잃은 것이다.

[한국일보] 2009. 9. 29.

세종시 논란 속에 실제로 와서 본 푸트라자야는 “와우” 하는 탄성이 나올 만한 도시임에 틀림없다. 여의도 면적의 80배에 달하는 녹색대지 위에 첨단과 전통이 어우러진 초현대식 건물과 각종 조형물이

세련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인텔리전트 정원 도시(Intelligent Garden City)’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인공호수와 습지, 공원이다. 도시 어디를 가나 현대적 쾌적함과 공간적 여유가 느껴진다. 6800달러라는 말레이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숫자 장난 같아 보인다.

[중앙일보] 2009. 11. 17.

다음의 사례는 동일하게 ‘여의도 면적’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구체적인 면적이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함께 제시하여 친절하게 나타낸 경우이다. 무조건 구체적인 수치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기한 문제처럼 여의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 면적을 가늠하기 어려운 누구라도 해당 지역의 면적을 가늠할 다른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독자에게 더욱 친절한 바람직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LG는 23일 경기 파주시 월롱 산업단지에서 4조원이 투자되는 'LG 파주 첨단소재 단지' 기공식을 가졌다. 모두 **84만㎡(25만 평·여의도 면적의 3분의1)** 부지 위엔 LG화학이 2018년까지 총 7개의 LCD용 유리기관 공장을 건설(3조 원)하고, LG이노텍이 2012년까지 LED 패키지 생산 라인을 설치(1조 원)한다. 내년 5월 LG이노텍이 LED 패키지를 양산하고, 2012년 LG화학이 LCD용 유리 기관을 생산하게 되면 이곳은 LG의 정보전자 부품소재 산업 최대 생산거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한국일보] 2009. 9. 23.

서울시는 최근 강서·구로·금천·도봉·성동·양천·영등포구 일대 **27.71㎢(시 전체 면적의 4.6%, 여의도 면적의 3배)**에 걸쳐 있는 준공업지역을 산업과 주거·문화 기능이 조화된 미래형 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 준공업지역 발전계획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전략한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도에 오르게 됐다.

[중앙일보] 2009. 11. 3.

다) 낙후 지역

‘달동네’, ‘판자촌’, ‘비닐하우스촌’, ‘쪽방촌’ 등과 같은 표현은 엄밀히 따져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표현이다. 특히 이러한 표현을 쓰는 기사를 살펴보면,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비닐하우스촌**’, ‘포이동 **판자촌** 주민들’, ‘마장동 청계천변 **판자촌**’과 같이 특정 동의 이름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달동네’, ‘판자촌’과 같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더라도 해당 지역 명을 그대로 드러내어 거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식의 표현은 삼가해야하며,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비닐하우스촌**. 강남 지역의 요지에 위치하면서 수도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있던 이 지역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데스크] 2009. 5. 11.

외국인 100만 시대, 외국인도 우리 이웃

코리아 드림을 좇아 한국에 온 **중국동포**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서울 가리봉동. 낡은 상가 건물마다 중국어 간판이 어지럽게 걸려 있습니다. 상가 골목에서 몇 걸음만 들어가면 이른바 **쪽방촌**이 나옵니다. 다

닥다닥 붙어 있는 좁고 낡은 방에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중국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이 같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 여러 곳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없다 보니 **도시 빈민촌**으로 **슬럼화**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009. 7. 18.

마장동 청계천변 '**판자촌**' 가보니

서울 성동구 마장동 청계천변에는 '**판자촌**'이 있다. 이곳에는 구멍가게도 있고 만화방도 있고 연탄가게도 있다. 조미료 '맛나' 간판을 단 허름한 가게가 행인의 시선을 확 잡아끈다. 만화방 문 왼쪽에는 20여 년 전에 종적을 감춘 동그란 다이얼의 주황색 공중전화기가 턱하니 걸려 있다.

[중앙일보] 2009. 6. 13.

□ 바람직한 표현을 위한 제언

‘달동네’, ‘판자촌’과 같은 비유적 의미를 담은 표현을 ‘빈곤 지역’과 같은 사전적 의미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마땅한 대안인지는 재고가 필요하다. 그 의미가 더욱 직설적으로 드러나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느끼는 어감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대체 용어를 찾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해당 지역 명과 나란히 사용하여, 그 지역에 사는 해당 주민뿐 아니라 ‘우면동, 포이동, 마장동’과 같은 그 일대 주민들에게까지 심리적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언어 표현의 사용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에서 특정 지역을 규정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음 기사와 같이 ‘그동안 무허가 판자촌으로 불리며 ... 서울시 포이동 266번지의 주민 96세대’로 풀어서 제시하는 것도 대안

이 될 수 있다. 즉, 명확한 소재지를 밝혀 해당 지역을 함께 묶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도 없거니와, '무허가 판자촌'이 아니라 '무허가 판자촌으로 불린'이라고 간접적인 표현을 한 것은 분명히 인식 차원의 차이가 있다.

20년 한(恨) 품 포이동 **판자촌** 주민들

20년 넘게 살아온 곳에서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한(恨)이 풀렸다. 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무허가 판자촌**'으로 불리며 주민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서울시 '포이동 266번지'의 주민 96세대(280여명)에 대해 최근 주민등록이 실시되고 있다.

[조선일보] 2009. 8. 4.

라) '촌(村)─'류

□ 차별적이거나 비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표현의 가장 큰 문제는 다음 표에 사전의 뜻풀이를 정리한 것처럼, 모두 대상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것이다.

용어	사전 뜻풀이
촌놈	시골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행동이나 외모가 촌스러운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촌구석	'촌(村)'을 낮잡아 이르는 말
촌뜨기	'촌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시골뜨기	건문이 좁은 시골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시골내기	시골에서 나서 자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문학 작품과 같이 표현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이러한 특정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 언어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위클리포커스] 조연의 정석 ‘해운대’ 김인권-‘국가대표’ 최재환

‘충무로의 팔색조’로 불리는 김인권은 ‘해운대’를 통해 ‘김인권의 재발견’이라는 평을 들을 만큼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극 중 날건달 '동춘'을 맡은 그는 만식(설경구)의 어린 아들에게 ‘무대뽕 정신’을 가르친다며 천연덕스럽게 앵벌이를 시키는가 하면 초등학교 동창인 연희(하지원)네 식당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다. 연희에게 아버지의 죽음과 관계된 사연을 고자질할 때는 알뜰기 그지없지만, 만식에게 들통나 무지하게 얻어맞을 때는 좀 안돼 보이기도 한다. 천변만화의 표정과 능숙한 부산사투리, **촌티 패션**을 ‘컨셉트 3중 세트’로 삼아 날건달의 진수를 귀엽게 보여준다.

[스포츠조선] 2009. 8. 24.

김원희, 강수정, 변정수이 이번 주에 캠핑카를 타고 찾아간 스타는? 드라마 ‘아내의 유혹’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탤런트 변우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천장, 버튼 하나면 자유자재로 열리는 블라인드. 한눈에 드러나는 강가의 절경까지. 낭만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별장의 유혹에 아줌마들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변우민이 직접 밝히는 여자 친구의 답살 애칭은 무엇인지, **부산 촌놈**인 그가 좌충우돌 끝에 **서울에 입성**하기까지의 눈물겨운 스토리, 변우민을 대성통곡하게 한 일기장의 정체 등을 밝힌다. 무려 세계 99개국을 돌아다녔다는 여행 마니아 변우민. 100번째 나라에는 신혼여행으로 떠나고 싶다는 그가 환상적인 신혼여행 계획을 공개하고 여자 친구에게 영상 편지를 띄운다.

[한겨레신문] 2009. 6. 12.

□ 바람직한 표현을 위한 제언

이 부분 역시, 일대일로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시골에 사는 사람’이라는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 ‘촌사람’ 역시 두 번째 뜻에 ‘견문이 좁고 어수룩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예문: 그날 그 극장의 관중들은 소학생도 아니요, 무지몽매한 촌사람들도 아니다.《김소운, 일본의 두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서, 대안으로 권고하기에 제한이 따른다. ‘촌사람’의 유의어로 ‘촌인(村人)(예문: 병정의 말이 천여 금 부비가 우리로 하여서 낫단 말이나 하고 촌인을 때리기 시작하여...《대한매일신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사용 빈도를 따져 볼 때 이 또한 쉽게 대체 용어로 권고하기 어렵다.

다만, 불필요하게 낮잡아 이르는 표현을 삼가고, 가능하면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무의식적인 차별 의식을 줄이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 인종·민족 차별 표현

1) 인종 차별 표현

인종을 구분하고 각각의 인종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과 같이 피부색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단순히 그들이 지닌 피부색을 가리키던 것이라도 여기에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이 작용함으로써 그러한 용어의 사용 자체가 특정 인종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한다. ‘백인, 흑인’이나 ‘유색인종’ 등의 단어는 일견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이나 ‘금발, 백발, 흑발’ 등과 같이 그 사람의 외적 특징을 가리키는 객관적 표현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백인’의 ‘흑인’에 대한, 그리고 ‘유색인종’에 대한 오랜 차별의 역사로 인해 ‘흑인’이나 ‘유색인종’이란 단어 자체가 ‘차별적 표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¹⁾(‘백인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인종을 한꺼번에 뭉뚱그려 표현하는 ‘유색인종’과 같은 표현 자체가 백인을 기본으로 하는, 백인 중심적인 표현인 만큼 이는 본래부터 차별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객관적인 사실의 기술을 위해 ‘유색인종’이나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등의 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 맥락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백인들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의 역사’ 같은 표현은 ‘차별적 상황’ 그 자체를 폭로하기 위해 이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차별적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음의 기사에 나타난 ‘유색인종’이라든가 ‘흑백’ 등의 용어 사용은 바로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1) 일상적인 대화나 인터넷 게시판 등의 비공식적, 사적인 언어에서는 ‘검둥이, 흰둥이’ 등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으나, 우리의 연구는 ‘공공 언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러한 예들은 제외하였다. 공공 언어에서는 이처럼 노골적이고 비속한 인종 차별 표현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유색인종과 청년층, 여성 그리고 서민계층, 이 4개 그룹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 세력으로 등장하며 향후 오바마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자리 매김할 전망이다.

[SBS 뉴스] 2008. 11. 6.

이로써 11월 미국 대선은 사상 첫 흑백 대결로 치러집니다.

[MBC뉴스] 2008. 6. 4.

위의 예들은 피부색에 따른 현실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상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유색인종’과 ‘흑백’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차별적 표현 사용이라 볼 수는 없다. 이는 흔히 과거 유럽이나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유색인종 출입금지’와 같은 팻말을 내걸고 명백한 차별을 행하던 시대에 ‘유색인종’이란 어휘가 나타내던 ‘차별적 의식과 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결국 똑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차별적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키느냐에 따라 그것이 차별적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 차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현재 세계는 피부색, 인종에 따른 차별을,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금기시하는 만큼 우리는 과거와 같은 ‘유색인종 출입금지’와 같은 표현을 공공 언어에서 접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및 미국으로 대표되는 백인종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유색인종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지배를 해 왔던 지난 역사로 인해, 그리고 현재도 이들이 이른바 ‘선진국’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백인종’과 대비되는 ‘흑인종, 황인종’이나 ‘유색인종’이라는 단

어의 사용은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열세를 상기시키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자면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백인’이 ‘주류’이고 ‘유색인종’이 ‘비주류’라는 사실이 엄연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현실을 보고하는 것 자체가 ‘유색인종=비주류 열세’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많은 유색인종들조차 묻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과 협력...누가 더 많이 웃고 살까

핀란드는 이민자는 받지 않고 난민만 허락하는데 이민자가 급증하므로 아무래도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아프리카계 학생들이 직업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지 의료보조원 교육을 받는 구성원은 모두가 유색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했다.

[프레시안] 2009. 3. 12.

사이버 공간에서도 인종, 계층 나뉜다.

백인, 중산층 facebook 애용, 유색, 하류층은 myspace 써

백인 중산층이 유색 인종이 많은 도심을 떠나 교외로 탈출한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도 중산층 자녀들이 자신들만의 인종, 계층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9. 7. 13.

Books, 김태훈 기자 <유색인이든 천민이든 ‘뿌리’ 중요하지 않아>

이 두 권의 소설은 영어로 쓰였고 영국 유수의 문학상을 받았지만 작가들은 주류 영국인이 아니다.

[조선일보] 2009. 4. 11.

위에 제시된 예들에서는 물론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의도를 지니고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사들은 각각 ‘백인’이 중심인 국가들에서 직업 교육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인종에 따라 구성이 나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거나 혹은 백인 주류 사회에서 유색인종으로서 성공을 거둔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의 태도나 전달 내용만으로 본다면 ‘유색인종’이라는 표현이 차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사들에서는 유색인종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는 암시를 읽을 수 있고, 특히 ‘백인, 중산층’과 ‘유색, 하류층’을 나란히 대비시킨 제목이라든가 ‘유색인’과 ‘천민’을 나란히 제시하고 본문의 ‘주류 영국인’과 대비하고 있는 것 등은 결과적으로는 독자로 하여금 ‘유색인종’과 ‘하류층’, ‘유색인’과 ‘천민’을 동일시하도록 이끌고 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유색인종’의 입장에서 기사를 읽을 때에는 이와 같은 기술이 충분히 ‘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 바람직한 표현을 위한 제언

우리 사회는 이미 다민족·다문화 사회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얼마 전에는 ‘살색’이란 단어가 한민족, 동아시아 인종 중심적인 표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살구색’으로 바꾸도록 한 바 있다.²⁾ 옅은 오

2)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크레파스나 물감 등에서 ‘살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특정색을 ‘살색’이라고 이름붙인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KS 표준에서 살색을 없애는 대신 문구류 등에서는 ‘연주황(軟朱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 12월에는 KS 계통색 표준을 개편하면서 한자어 ‘연주황’을 한글 이름인 ‘연한노랑분홍’으로 변경하였으나 문구류 등에서는 계속 ‘연주황’이 사용되었다. 이에 한자어인 ‘연주황’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05년 5월, 기술표준원에서는 KS 표준 관용색 명칭에서 ‘살색’을 대체하는 표현으로 ‘살구색’을 최종 결정하였다.

렌지색에 가까운 색을 피부색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살색’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오랜 기간 우리의 피부색에 가까운 이 색을 ‘살색’으로 지칭해 온, 그리고 그것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지적이 매우 놀랍고 새로운 것이었다. 이처럼 표현 중에는 그것의 역사나 맥락,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언중들이 문제의식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상당수이다.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나 ‘유색인종’ 등의 표현도 그것이 단지 피부의 색을 지칭하는 객관적 표현이 아니라 그 배경에 차별적 의식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지금처럼 이 표현들을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를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어내는 표현이 되는, 그리고 ‘서양, 백인’과의 대립에서만 의미를 갖는 ‘유색인종’이란 표현이나 혹은 단지 피부색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과 같은 표현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위에 제시된 사례들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등 ‘백인종’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을 가리키기 위해 ‘유색인종’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라면 ‘아시아계 주민, 아프리카계 이민자’ 등과 같이 그들의 출신 지역을 이용한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인종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우열과 관련하여 편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위의 기사와 ‘유색인종=하류층, 천민’과 같은 독해가 가능한 제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스스로가 별다른 차별 의식 없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는 ‘황색 탄환’, ‘검은 돌풍’ 등과 같이 피부색에 빗댄 표현들이 있다. 이들은 대개 기존에 백인들이 주도하던 스포츠 분야에서 황인종이나 흑인

종 선수가 우세를 보이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의도 자체는 그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차별적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기준에 흑인이나 황인종이 우세를 보이던 종목에서 백인이 우세를 보이는 경우에 ‘흰색 ~’이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역시 ‘황색 ~, 검은 ~’ 등은 ‘백인’을 ‘주류, 기본, 중심’으로 하는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다. 백인 사회에서는 자신들을 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백인중심적인 표현을 굳이 빌려다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다.³⁾

2) 민족 차별 표현

가) 조선족

19세기 말~20세기 초 주로 일제 강점기에 간도나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였다가 지금의 중국에 정착하게 된 한국인과 그 후손들을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 ‘조선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 조선족 인구의 팔분의 일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2008. 1. 19.

3) 인종에 따른 오랜 차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저항의 역사 역시 오래된 미국의 경우는 피부색에 따른 표현에 유독 주의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상적인 표현에서도 ‘black’이나 ‘colored’란 단어를 사용하는 데 주의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내 소수민족들을 열거하는 과정에서 소수민족 중의 하나로서 ‘조선족’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차별적 표현’이라 하기 어렵다.

□ 차별적이거나 비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똑같은 ‘조선족’이란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차별적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존재한다.

절대강자 실종 실업탁구, 10일부터 후반기 경기

대한항공이 삼성생명을 꺾고 1승을 거뒀고 대우증권은 **조선족** 출신의 16세 소녀 강미순의 활약 덕에 KRA를 잡고 1승을 신고했다. 대한항공은 김경아 뿐 아니라 중국에서 귀화한 당예서, 석하정이 버티고 있고 삼성생명은 수비형 선수인 박미영의 성장이 돋보인다. 여자팀은 해체된 현대시멘트에서 팀을 옮겨온 조하라(삼성생명)와 서효원(KRA), 남소미(대우증권)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 1차 라운드 후반기 경기는 오는 10일 상무-농심삼다수, 대한항공-KRA 경기로 재개된다.

[연합뉴스] 2009. 9. 7.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면 ‘중국 국적을 지닌, 혈통적으로 한국인의 후손인 사람’에 대해 ‘조선족’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앞서의 사례와 위의 사례에 나타난 ‘조선족’이란 표현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선족’이라 지칭되는 사람들 자신이 이 말이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고 한다. 중국인들이 이들을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는 특별한 차별을 느끼지 않으나, 오히려 같은 민족인 한국인들이 ‘조선족’이라고 부를 때에는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들과 비

슷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일본이나 미국의 한인들에 대해서는 각각 ‘재일동포/교포’나 ‘재미동포/교포’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들에게는 ‘조선족’이란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한국인들이 경제적으로 약자인 자신들을 알보고 차별한다는, 또한 자신들을 동등한 하나의 ‘한민족’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 의식의 형성에는 분명 한국인들 자체의 인식과 태도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는 곧 ‘조선족’이란 표현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를 덧입히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 표현에 대한 대안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 바람직한 표현을 위한 제언

중국의 ‘조선족’이나 구소련 지역인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은 일제 침략이라는 우리 근·현대사의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대규모 이주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이주는 19세기 말~20세기 초 하와이나 멕시코 등지의 농장 노동자로 이주했던 한인들의 경우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경우,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경우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각각 재일동포/교포나 재미동포/교포 등으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유독 중국의 ‘조선족’이나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들을 별도로 불러야 할 이유는 없고, 이들에 대해서도 ‘재중동포/교포’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최근 개봉한 ‘이리’와 ‘중경’을 연출한 [재중동포](#) 감독 장률 감독이 한국영화아카데미의 마스터클래스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프레스안] 2008. 11. 20.

또한 특정 개인이 혈통상으로는 한국과 관련되나,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인’으로 인식하는 상황이라면 ‘한국계 중국인’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족’ 유학생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 역시 ‘조선족’이란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재중동포’, ‘한국계 중국인’ 등의 대안 표현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말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차별적 의식과 태도’의 변화 없이 ‘차별적 표현’을 새로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심층 면담

김용(30세, 남성, 재중동포, 대학원생)

중국 조선족의 형성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어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한반도에서 이주해 간 이주민들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이들은 조선인이라고 불리다가 새 중국이 건립되면서 중국 내의 한족(漢族)을 제외한 55개의 소수민족의 하나로 조선족(朝鮮族)이라는 명칭이 새롭게 부여되었다. 이 명칭은 중국 내에 살고 있는 민족의 뿌리가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조선족이라는 이 명칭은 중국의 다민족국가라는 특징에서 비롯된 개념으로서 중국의 다른 민족과 구분해서 지칭하는 용어로서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용어를 한국 내에서 인용할 경우, 그 사용 목적 내지 의도에 따라 구분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소위 조선족이라 불리는 공동체를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로 보는 관점에서는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그 명칭 앞에 중국이라는 수식어를 꼭 명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조선족이라는 개념 내지 용어가 중국의 민족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다음, 조선족을 한반도에 뿌리를 둔 공동체로 보는 관점에서는 조선족이라는 명칭 대신 재중동포 내지 재중교포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중동포 내지 재중교포라는 명칭에는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투영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한민족 의식이 결여되어 웬지 조선족 공동체가 중국 내에서 자생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저 본인도 한국인들이 이처럼 오해하고 있는 경우를 접한 적이 있는데, 이는 아마도 한국처럼 단일민족국가에서는 중국과 같은 다민족국가의 실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동포 내지 교포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 웬지 친숙함을 느끼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

따라서 조선족이라는 표현은 차별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어디까지나 보는 관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 내에 많은 중국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한국에 정착할 의지와 현실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에게는 조선족이라는 명칭보다는 재중동포 내지 재중교포라는 명칭을 부여하거나 더 나아가 이들이 귀화 신청해서 한국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이들은 당연히 한국인의 자격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반면, 자신의 뿌리를 한반도에 두면서도 정체성은 중국인이라고 간주하는 이들에게는 조선족 또는 재중동포(교포)라는 명칭보다는 한국계 중국인이라는 표현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실제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다민족국가인 미국에서도 아시아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과 같이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표현은 민족성도 중시하면서도 그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인정해 주는 보다 균형적인 입장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중 수교 이래로 많은 조선족들이 노무(勞務)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초기에 건너온 이들은 대부분 교육 정도가 비교적 낮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실제로 한국에서 조선족들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아 온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편견과 오해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다. 현재 한국 내에 노무로 거주하는 조선족들도 전보다 자중감이 훨씬 높아져 있고, 그리고 많은 이들

이 노무 외에도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 청소년 탁구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강미순 양의 사례가 그 방증이 되고 있다.

요컨대, 소위 조선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해 어떠한 명칭을 부여해야 마땅한지에 대한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보다는 이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실제적이며 오도(誤導)되지 않은 이미지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나) 에스키모

‘에스키모(Eskimo)’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북극, 캐나다, 그린란드 및 시베리아의 북극 지방에 사는 인종”이라고 되어 있다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굿바이 덴마크” 그린란드 234년 만에 독립국 첫발

200년 넘게 덴마크 지배를 받아온 그린란드가 21일 자치권 발효 기념식을 열고 독립 국가로 가는 첫발을 내디뎠다. 1775년부터 덴마크령 자치영토였던 세계 최대의 섬 북극 그린란드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자치권 확대안이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되면서 이날부터 북극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사법·경찰권 및 제한적인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에스키모**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국제법에 따라 그린란드 국민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자축했다. 공식 언어도 이들이 사용하는 그린란드어가 채택됐다.

크피크 클레이스트 총리는 기념 연설을 통해 "오늘 아침 우리는 가슴 속에 새로운 희망을 안고 일어났다"면서 "오늘부터 우리나라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찬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

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들은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자치권을 얻었지만 그린란드는 덴마크와 "대화와 상호 이해, 호혜적 존경심을 바탕으로" 자치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마르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과 남편 헨리크도 **에스키모**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식에 참석해 그린란드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그린란드는 지난 2일 치러진 총선에서 좌파 야당이었던 '이누이트 아타카티기이트(IA)'당이 승리하면서 30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도 했다. 그린란드의 국내총생산(GDP)은 17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주민 5만 7천 명 중 5만 명이 **에스키모** 족으로 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 6. 22.

그러나 이미 많이 알려져 있듯이 이 단어는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들 종족을 비하하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이들 스스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이들 스스로는 자기 종족을 가리키는 말로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누이트’란 단어를 사용한다(위의 사례에 제시된 정당의 명칭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한국어에서 ‘에스키모’란 단어에는 이들 종족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단어가 애초에 비하의 의미를 담고 출발하여 지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모욕적으로 느낀다면 마땅히 이 표현은 교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에스키모’ 대신 그들 스스로 사용하는 ‘이누이트’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에스키모’란 단어에 익숙하고 그것이 지닌 차별적 의미를 채 인식하지 못하는 언중들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이누이트(종전의 에스키모)’와 같은 식으로 병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아래의 기사에 나타난 사례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알래스카 서해안의 시워드 반도에 접해 있는 사리세프 섬 시시마레프 마을에는 **이누이트**(에스키모)족이 산다. 인구는 500여 명. 이들이 고향을 등져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던 연안의 얼음이 녹으면서 폭풍과 해일 피해가 늘었고 해안 침식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알래스카 주정부 환경보전부의 재키 포스틴 기후변화협력관은 “과거에는 바람이 조금 불다가 그쳤지만 바다 얼음이 없어지면서 여름과 가을 폭풍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이누이트족**을 약 1km 떨어진 육지의 메타빅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시마레프는 알래스카의 ‘투발루’가 된 섬이다.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땅이 잠기고 있는 남태평양의 섬이다. 알래스카에는 30여 개 마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중앙일보] 2009. 10. 14.

다) 아메리칸 인디언 / 인디언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었던 종족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것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로 착각하여 일어난 결과로, 이는 역사적 착오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곤 한다. 이들을 ‘인도 사람’과 구별하여 흔히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도 부른다.

마치 **아메리칸 인디언**처럼 원주민으로서의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보잘것없이 살육당해야 하는 처지였다.

[조선일보] 2009. 4 .4.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그 땅에 터를 잡고 거주하던 원래의 주민들이라는 인식 하에 ‘Aboriginal’ 또는 ‘Aborigine’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⁴⁾ 우리 역시 이들을 ‘아메리칸 원주민’ 혹은 ‘아메리칸 토착민’ 등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아래의 기사들은 ‘토착 미국인, 아메리칸 원주민’ 등의 대안적 표현이 이미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종·성차별주의의 진원 美 대중문화 분석

미국은 **토착 미국인(아메리칸 원주민)**, 아프리카계 미국인, 치카노(중남미계), 아시아계 미국인 등이 함께 만든 나라다.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은 없었을지 모른다. 그런데도 미국은 그런 현실을 감춘 채 '앵글로색슨 백인 남성' 중심의 역사와 문화를 강조했고 그것이 미국 대중문화를 통해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일보] 2009. 9. 5.

그의 가족들은 “예토가 3주 전 베트남전에서 실종된 전우들을 찾기 위해 아시아로 간다며 고향인 미주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그가 수치 여사 집에 들어간 데 대해 그의 전 부인은 “수치 여사와 단지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백인과 **아메리칸 원주민** 사이의 혼혈인 예토는 집이 불타고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등 불행하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 여사의 변호인은 “수치 여사가 예토에게 수차례 나가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9. 5. 16.

- 4) ‘Aboriginal’ 또는 ‘Aborigine’은 본래 오스트레일리아의 토착민, 원주민을 이주해 온 백인종들과 구별하여 부르던 표현이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에 대해 미국에서는 ‘native american’이란 표현이 먼저 사용되었으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native american’이기 때문에 이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 최근에는 ‘aborigine’이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 ‘혈통’ 관련 차별 표현

1) ‘-계(系)’ 관련 표현

다민족 국가, 다민족 사회에서는 어떠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계’라고 하는, 혈통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일이 많다. 이는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어서 외국의 경우도 ‘유대계 연주자’라거나 ‘아일랜드계 이민의 후손’, ‘히스패닉계 유권자’ 등과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이 기사는 미국 영화계에 진출한 아시아계 감독이나 배우의 성공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중국계’라든가 ‘한국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 ‘차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윤발, "한국 다시 오니 좋네요."

연출을 맡은 제임스 왕 감독은 <테스티네이션> 시리즈 중 1편과 3편 및 <더 윈>을 연출해 입지를 굳힌 **중국계 감독**. [드래곤볼]이 일본 만화로서 특히 아시아 전역에서 히트를 한 만큼 주인공 손오공과 부르마, 그리고 피콜로를 제외한 다른 캐릭터에 아시아권 배우를 포진시켰다. 특히 우리나라의 박준형이 야무치役に 발탁돼 이전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치치역을 맡은 제이미 정 역시 **부모가 모두 한국계인 재미교포 2세**다. 91년 이후 18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주윤발은 이미 아시아 최고의 스타이자 헐리웃 스타인만큼 열띤 취재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프리티안] 2009. 2. 19.

□ 비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현재의 국적과는 별도로 ‘혈통’을 강조하는 표현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한 정보로서 제공될 수도 있으나, 똑같은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서는 종종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과거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특정 인물에 대해 굳이 ‘유대계(jewish)’라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드러냈던 것도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특정 민족을 비하하는 의미나 의도를 지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와 같이 필요 이상으로 혈통을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국적이나 지역 등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혈통’에 따라 구별 짓고 나누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타 민족에 대해 ‘-계’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에만 차별적 표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 국적을 지닌, 그러나 혈통적으로 한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 ‘한국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중심적인 차별 표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 살고 있고,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으며, 종종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외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개인에 대해 굳이 ‘한국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는 ‘피를 나눈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 ‘한민족’과 ‘순수 혈통’에 대한 강조가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입양아·교포 2세. 성조기 달고 뛰는 한국 피. “미국도 한국도 파이팅”

올림픽은 국적과 인종을 뛰어넘는 행사다. 동시에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경쟁으로 세계인들이 모두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미국의 대표로 출전한 배쇼어와 베키 김. 푸른 눈 선수들 사이에서 뛰고 있지만 **우리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후략)

[스포츠조선] 2008. 8. 19.

위의 사례에서, 미국 국적을 가졌으나 혈통적으로 한국인인 경우를 ‘한국 피’, ‘우리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런 ‘한국인의 혈통’에 대한 강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자민족 중심적인 태도나 인식은 그 자체로는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그리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한국인, 한국계, 한국인의 혈통’ 등과 같은 ‘단일민족’, ‘혈통’에 대한 강조는 자칫 ‘외국인, 이주민, 혼혈’에 대한 배타성 혹은 차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즉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한국인의 혈통’이라면 곧 ‘우리’,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동질감은,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인의 혈통이 아닌 경우는 ‘남’, 여전히 그가 태어난, 혹은 그의 부모가 태어난 ‘다른 국가’에 속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배타적 태도와 연결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한국계’뿐만 아니라 ‘아시아계’에 대한 강조 역시 넓게는 ‘우리’ 중심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례는 그러한 태도의 한 일면을 보여준다.

北 석방 여기자들 비디오로 인사

북한에 억류돼 있다 140일 만에 풀려난 [한국계 유나 리\(36\)](#)와 [중국계 로라 링\(32\)](#) 등 [미국인 여기자](#) 2명이 석방에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비디오가 미국 커런트 TV 사이트에 등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본사를 둔 커런트 TV는 13일 자사 사이트에 유나 리와 로라 링이 한 자택의 소파에 나란히 앉은 채 등장, 석방 축구 활동에 참가해 준 지인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1분50초짜리 비디오를 올렸다.

[연합뉴스] 2009. 8. 14.

위의 기사가 다루고 있는 사건에서 미국인 여기자들이 ‘중국계’와 ‘한국계’라는 사실은 ‘북한이 미국인 기자를 억류했다가 석방하였다’라

는 사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 하기 어렵다(물론 기사의 주제가 ‘미국 내 아시아계 기자들의 활약’ 등이라면 그러한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에서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해 ‘중국계’와 ‘한국계’라는 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단순한 ‘미국인’으로 보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와 같은 아시아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만약 이들이 ‘유대계 미국인’이라든가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다면 아마도 그러한 혈통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을 것이다.

□ 바람직한 표현을 위한 제언

예전의 학교 교육과 비교할 때 최근의 학교 교육에서 ‘단일민족’을 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한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측면 외에 다민족 사회로 변화해 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계’에 대한 강조는 한국 사회 밖의 ‘우리 민족’에 대한 연대감이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 한국 사회 안의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국적과 관계없이 ‘중국계, 한국계, 유대계’ 등과 같이 ‘혈통’을 나타내는 표현을 굳이 강조하는 표현 역시 사람들을 그의 혈통에 따라 구별 짓고, 서로 대립시키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라는, 혈통을 나타내는 표현은 글의 맥락에서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삼가하고, 국적만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서라면 ‘중국계, 한국계’라는 표현 없이 ‘미국인 여기자’란 표현만으로도 충분하며, ‘한국 피’, ‘우리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 등과 같은 표현 대신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라든가 ‘부모가 한국인인 교포 2세’라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2) 혼혈아, 코시안, 다문화 아동

‘반만년 역사를 지닌 단일민족’임을 강조해 온 한국은 최근 10여 년 간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2009년 8월 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는 약 92만여 명,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신 주민이나 외국인과 귀화자의 자녀 등이 약 18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중에는 외국 국적을 지닌 재외동포 4만 3703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이 아닌 외국인은 대략 100만 명에 이른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현재 다민족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식과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이른바 ‘혼혈’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을 강조해 온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순수 혈통’이 아닌 타민족과의 ‘혼혈’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고, 특히나 피부색 등에서 외적으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타 인종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는 ‘특이한 존재’, ‘우리 밖의 존재’로서 배제되고 차별을 받는 일이 많았다.(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혼혈아’를 가리킬 때 ‘튀기’-노새 등과 같이 종(種)이 다른 두 동물 사이에서 난 새끼와 같은 비하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 그러한 부정적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로 인해 갈등과 차별의 맥락에서 ‘혼혈아’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혼혈아’라는 표현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덧입혀졌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경향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2020년경에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전체 인구의 3%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등,⁵⁾ 그만큼 이제 이른바 ‘혼혈인’을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특이한 존재’나

5) 이러한 현상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두드러지는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온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농촌에서 결혼한 5가구 중 3가구는 국제결혼 가정이라는 통계도 있다.

‘우리 밖의 존재’로만 볼 수는 없게 되었다.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에서 서술자는 ‘혼혈아’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혈아’라는 표현을 읽는 순간 많은 독자들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순수한 혈통의 우리’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존재로서의 ‘그들’을 상정하게 된다. 문맥에 나타난 ‘토종, 한국인’이라는 표현과의 대립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덧붙여, ‘혼혈아’의 사전적 정의가 ‘혈통이 다른 종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른에게도 ‘-아’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가? 물론 ‘기린아, 이단아’ 등의 쓰임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아(兒)’가 붙은 말이 ‘-아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그에 비해 ‘문제아’는 반드시 아동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러나 이미 어른인 사람에 대해 ‘혼혈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어쩐지 그 사람을 낮잡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문학예술]몽골서 읊조린 ‘한국인의 자화상’...‘늑대’

‘이미테이션’은 혼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희극적으로 풍자한 작품이다. 주인공 ‘게리’는 농사짓는 전형적인 한국의 시골 가정에서 태어난 **토종 한국인**임에도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혼혈아**로 오인 받는다. 어린 시절 내내 놀림에 시달리며 정체성 혼란에 시달린 그는 차라리 자신을 **혼혈아**라고 속이는 게 이 사회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사는 방법임을 깨닫는다. 그가 사회적 편견을 역이용해 외국인 강사로 위장해 영어를 가르친다는 웃지 못 할 상황은 다양성을 용인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편협함에 대해 뼈아픈 성찰을 해보게끔 한다. 탈북자들의 상황과 심경을 생생하게 그려낸 ‘강을 건너는 사람들’, 1980년대 초 군사독재 시절 아이들의 삶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아이들도 돈이 필요하다’ 등도 실려 있다.

[동아일보] 2009. 5. 2.

‘미드’속 그 남자, 알고 보니 한국남,美주름잡는 한국계 스타들

‘혼혈아 아닌 100% 토종’ = 피어스 브로스넨 주연의 영화 '007 어 나더데이'에서 북한 사람 문대령 역으로 얼굴을 알린 윌 윤 리(34·이성욱). 이국적인 외모로 혼혈아를 연상케 하지만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토종'이다.

[중앙일보] 2009. 6. 3.

한편, 그리 널리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최근 몇몇 매체에서 ‘혼혈’의 대안 표현으로 ‘하프 코리안(half Korean)’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범경기에서 몰아친 하프코리안들의 돌풍이 정규리그에서도 계속 몰아칠 수 있을까. 2009-2010 KCC 프로농구 개막(15일)을 앞두고 지난 2월 열렸던 '귀화 혼혈선수 드래프트'에서 나란히 1~2순위를 휩쓴 전태풍(KCC.178cm)과 이승준(삼성.206cm)의 정규리그 연착륙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농구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올해 프로농구에 뛰 어든 하프코리안은 모두 5명. 시범 경기를 통해 전태풍과 이승준이 특급 외국인 선수에 버금가는 실력으로 '합격점'을 받은 가운데 원하준(KT&G), 문태영(LG), 박태양(KT) 등도 리그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09. 10. 12.

‘하프 코리안’ 코트 점령하나...이승준·전태풍 돌풍 예감 ‘관심집중’

“이승준은 서장훈, 김주성이라고 보면 된다. 전태풍은 일대일 기량이 역대 (외국 출신) 가드 중 제일 좋은 것 같다.”

동부 강동희 감독이 본 귀화혼혈선수 이승준(2m4·삼성), 전태풍(1m80·KCC)에 대한 평가다.

KBL이 2009~2010시즌부터 귀화혼혈선수(하프코리안)를 국내선수와 똑같은 자격으로 뛰게 함으로써 이들의 활약은 올 시즌 전체 프로농구 판도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됐다. (중략) 외국인선수도, 이적·신인선수도 아닌 바로 이들 귀화혼혈선수들의 활약에 따라 올 시즌 프로농구의 판도가 달려 있다.

[경향신문] 2009. 10. 13

‘혼혈’, ‘혼혈아’와 같은 표현이 차별적이라는 인식에서, 이를 피하고 자 새롭게 등장한 것이 ‘하프 코리안’이란 표현인 듯하다. 그러나 이 표현은 결국 ‘절반이 한국인’ 혹은 ‘절반만 한국인’이라는 의미이므로 이 역시 ‘온전한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함의를 담고 있는, 차별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용어는 ‘혼혈, 혼혈아, 혼혈인’, 혹은 위의 기사에서 제시된 ‘귀화혼혈선수’라는 표현에 대한 적절한 대안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람직한 표현을 위한 제언과 대안 표현에 대한 재검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혼혈’이라는 표현 자체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혼혈아’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혼혈’ 여부가 문맥상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굳이 이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으며, 만약 이것이 중요한 정보인 경우라면 ‘흑인 혼혈’이나 ‘백인 혼혈’ 등으로 표현하는 대신 ‘부모가 ~ 출신’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위의 사례에서도 ‘이국적인 외모로 혼혈아를 연상케 하지만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토종이다’와 같은 문장은 ‘이국적인 외모를 지녔지만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다’ 정도로 바꿀 수 있다). 또한 부득이 ‘혼혈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성인에 대해서는 ‘혼혈인’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 대안 표현으로서의 ‘코시안’에 대한 검토

‘혼혈아’라는 표현에 내포된 부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거니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 때 ‘코시안’이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코시안’은 ‘Korean(한국인)’과 ‘Asian(아시아인)’의 두 단어를 합성한 것으로, 1988년에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를 가리키는 뜻으로 처음 사용하였다. 본래 ‘코시안’이라는 용어의 취지는 ‘차별성과 배타성을 극복’하고 평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박천웅, 2006). 따라서 안산의 ‘국경 없는 마을’ 등이 ‘코시안 타운’으로 불리는 등 한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지칭하는 초창기 이름으로 활발하게 쓰였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또 이러한 사실이 신문과 공영 방송 등 언론에서 널리 보도되면서, ‘코시안’이라는 용어도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의미가 다소 변질되었다. 즉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면서 이 용어는 국제결혼 가정의 2세와 이주 아동을 모두 포괄하는 이름이 되었다.(이 두 집단의 공통점은 겉모습이 보통 한국인들과 달라 차별을 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코시안’은 ‘한국인인 아시아인’을 통칭한 다기보다는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인과 외모가 유사한 중국인이나 일본인과의 결혼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제외한 동남아시아(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혼혈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코시안’이라는 용어의 본래 취지는 차별성과 배타성을 극복하고 평등을 주장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차별적 표현’의 하나로 보는 것은 지나친 문제 제기라 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장애인’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태도’가 문제이듯, ‘코시안’이라는 용어도 코시안 아동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철학을 가지고 평등의

의미로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박천웅, 2006).

하지만 처음의 취지와는 달리 ‘코시안’이라는 용어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한국인 스스로도 아시아인의 일부이면서도 한국인과 아시아인을 합성한 ‘코시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보다 못하는 아시아인과 한국인을 구별 지으려는 우월 의식이 작용한 결과이며, 이는 신종 ‘오리엔탈리즘’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일본인과의 혼혈인에는 ‘코시안’이라는 용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단적인 예로 제시한다). 또한 이 용어의 핵심에는 피부색, 외모로 나타나는 강력한 인종 구분의 개념이 작용하고 있다. ‘코시안’은 외모적으로 한국인보다 피부가 어둡고 이국적인 용모를 가진 아이들을 분리해 낸다. 기존 한국 사회에서 ‘혼혈아, 혼혈인’은 ‘한국전쟁 직후의 흑인 혼혈인 또는 백인 혼혈인’으로부터 시작된 백인 혹은 흑인과의 혼혈을 주로 가리켰는데, 이제는 이러한 혼혈인과 구분하여 또 다시 ‘동남 아시아계 혼혈인’을 구분 짓고 있는 것이다. 즉 같은 혼혈인이라도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의 인종적, 사회적, 경제적 기준에 따라 따로 명명하고 있다(설동훈, 2008).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코시안’으로 불리는 이들 역시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 즉 ‘코리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렇게 ‘코시안’이라는 용어로 이들을 기존의 내국인 가정의 자녀와 구별 짓는 것은 불필요한 명명이며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코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인터넷 포럼에서는 이를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의 순혈주의적 인식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러한 명명을 그만두라는 누리꾼들의 의견을 볼 수 있다.⁶⁾ 실제 당사자들 또한 “코시안이라고 하면 아시아인도 한국인도 속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싫다.”라고 하였다.⁷⁾ 즉 제3의 정체성으로 인정하며 평등 의식을 갖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 이제는 오히려 차별적 명명이 되어 버린 것이다.

6) 전라북도 교육청, ‘다문화 가정 사이트 대화방, 여러분은 코시안이란 용어를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2006. 3. 8.

7) 경남 도민일보, ‘코시안’ 쓰지 마라! <http://kr.blog.yahoo.com/pleamore/2795>

한편, ‘코시안’에 대한 대안으로 ‘온누리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온누리안’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2006년도 ‘국제결혼 가정 도움 계획(Kosian Edu Plan)’ 추진의 일환으로 국제결혼 가정을 통칭하는 명칭을 공모하여 선정한 용어이다(권순희, 2006). 온누리안(Onnurian)은 온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온누리’와 ‘-ian’(사람)의 합성어로 ‘세계인’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말도 역시 그들을 제3의 존재로 집단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설동훈, 2008). 용어가 유사한 만큼 ‘코시안’과 마찬가지로 대상 집단을 구별 짓고 타자화 한다는 비판을 넘어서지 못해 대안으로 널리 쓰이지는 못하였다.

-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아동’에 대한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시안’이란 용어가 여러 비판에 직면하자, 이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요즈음은 ‘다문화 (가정) 아동’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아동’이라는 말을 공식적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학계, 교육계에서 이 용어가 매우 널리 쓰이고 있다(권순희 2006, 윤희원 2006).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행한 연구인 윤희원(2006:1)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단순히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으로 성립된 가정’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까지도 포괄하는 용어로 규정하였다.

다문화 가정	그 자녀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외국인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아이
새터민 가정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한 아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다문화’라는 용어는 본디 학문적, 정책적 논의인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서 나온 말인데, 다문화주의는 국가나 인종, 민족 뿐만 아니라 사회 내의 소외 계층이나 소수 계층, 혹은 세대 간 갈등이나 성 역할의 차이 등 미시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다(이용승, 2004). 따라서 요즘 한국 사회에서 주로 ‘다인종’에 대한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현상에 비하여 광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를 고수하는 이데올로기에 반하여 다양한 개념과 가치를 상대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흐름이다(권순희, 2006:226). 즉,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와의 이분법적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⁸⁾

따라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본래, 또한 현재 실제로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아동’ 등의 쓰임으로 보아도 매우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개념적으로는 다양한 문화가 충돌하는 현상은 모두 ‘다문화’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범사회적인 현상으로 한정시킨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다양한 사례들이 모두 ‘다문화’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확한 현상 지시의 기능이

8) Christensen, 원숙연(2008:529)에서 재인용.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냥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아동’이라고 하였을 때 용어 자체로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지 쉬이 알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다문화’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 데에는 이러한 추상화한 명명이 어느 정도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코시안’에 대한 반감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소수 계층에 대한 명명은 그 자체로 차별이 되기가 쉽다. 반면 ‘다문화’라는 넓은 개념 안에서는 이들의 특성은 최대한 희석될 수 있어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김혜순(2008:40)에서도 ‘보편 가치일수록 대다수가 동의하는 정의는 추상 수준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런 사회를 ‘다인종, 다민족, 글로벌’ 사회로 부르지 않고 ‘다문화’ 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요즈음 학교 등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다문화’ 개념이 공유 및 정착되고 있어 보편적 통용의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에 대해서도 차별적 명명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제기된다. 한 칼럼에서는 “오늘 수업 후에 조사할 것이 있으니 다문화 애들 잠깐 남아 있어”라는 선생님 말에 친구들이 ‘다문화’라고 놀렸다는 아동의 일화를 전하고 있다.⁹⁾ 정책적 용어인 ‘다문화’는 제3자를 ‘지칭(指稱)’할 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부르는 ‘호칭(呼稱)’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개인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언어폭력이 될 수 있다. 학교 또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보니 그 파급력이 크고 개인을 배려하지 않고 조심성 없이 사용되는 위험성이 있다. 결국은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간에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별적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9) 김범수, “다문화 학생 남으세요.” 상처 주는 말들, ‘내 생각은 ...’, 중앙일보 2009. 08. 22. <http://news.hanafos.com/view.asp?articleno=6358304&classno=07>

3) 기타 표현

가) 토종 / 토종 한국인

‘토종 한국인’이란 표현 자체는 “외국인, 혹은 다른 인종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혈통”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순수 혈통’과 같이 ‘혼혈인’에 대응하여 특별히 우월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차별적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토종’이라는 말은 사람이 아닌 동식물 등에 대해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토종 한국인’과 같이 사람에게 대해 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토종’의 반대말인 ‘외래종’이라든가 혹은 ‘잡종’과 같은 표현이 사람에게 대해 사용할 수 없음도 명백하다.

[문학예술]몽골서 읊조린 ‘한국인의 자화상’...‘늑대’

전성태 작가 3번째 신작소설집

‘이미테이션’은 혼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희극적으로 풍자한 작품이다. 주인공 ‘게리’는 농사짓는 전형적인 한국의 시골 가정에서 태어난 **토종 한국인**임에도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혼혈아로 오인 받는다. 어린 시절 내내 놀림에 시달리며 정체성 혼란에 시달린 그는 차라리 자신을 혼혈아라고 속이는 게 이 사회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사는 방법임을 깨닫는다. 그가 사회적 편견을 역이용해 외국인 강사로 위장해 영어를 가르친다는 웃지 못 할 상황은 다양성을 용인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편협함에 대해 뼈아픈 성찰을 해보게끔 한다. 탈북자들의 상황과 심경을 생생하게 그려낸 ‘강을 건너는 사람들’, 1980년대 초 군사독재 시절 아이들의 삶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아이들도 돈이 필요하다’ 등도 실려 있다.

[동아일보] 2009. 5. 2.

‘미드’ 속 그 남자, 알고 보니 한국남, 美 주름잡는 한국계 스타들
‘혼혈아 아닌 100% 토종’ = 피어스 브로스넌 주연의 영화 ‘007 어
나더데이’에서 북한 사람 문대령 역으로 얼굴을 알린 윌 윤 리(34·이
성욱). 이국적인 외모로 혼혈아를 연상케 하지만 부모가 모두 한국인
인 ‘토종’이다.

[중앙일보] 2009. 6. 3.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은 맥락에서라면 ‘토종 한국인’은 단순히 ‘한
국인’으로, 또한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토종”과 같은 문장에서는 아예
‘토종’이라는 말을 생략하여 ‘부모가 모두 한국인’ 정도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

나) 라이파이한

1960~1970년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 혹은 민간인으로 베트
남에서 일하던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을
가리켜 베트남에서는 ‘Lai Đại Hàn’이라고 한다. ‘Đại Hàn’은 ‘대한’, 즉
한국을 의미하며, ‘Lai’는 ‘혼혈’을 뜻하는, 비하의 표현이다.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 한국은 베트남의 적국이 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적
국의 군인이나 민간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더구나 그들이 합법적인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나지 않은 경우일 때,
경멸과 차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아버
지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고 교육의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없었으므로 사회적으로도 소외 계층이 될 수밖에 없었
다. 따라서 베트남어로써 ‘라이파이한’이란 단어는 그 말 자체의 의미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할 때에도 비하, 차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베트남이 아닌 한국에서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특별히 이러

한 비하나 차별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의 사례는 바로 그러한 예이다.

베트남 ‘라이파이한’ 학교’ 내달 개교

성공회 서울교구장 김은상 주교 “선교활동 교육-의료봉사에 집중”
“베트남 여성과 베트남전 참전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라이파이한’들을 위한 학교를 8월 26일 호찌민에 열어 컴퓨터, 한국어, 영어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을 통해 라이파이한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했으면 합니다.”

20일 취임 6개월을 맞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김은상 주교(56·사진). 이날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 종교의 진심 어린 선교와 자기반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부 선교사는 현지에서 자녀를 호화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도 한다. 선교활동도 포교보다는 교육사업이나 의료 봉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라이파이한 학교 설립도 이 같은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9. 7. 21.

이 기사에서 ‘라이파이한’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차별적 의도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국인들이 ‘라이파이한’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차별과 배타성’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움, 연민, 자책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라이파이한’이란 표현에서 ‘차별’의 의미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이 말의 유래로 보나 실제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양상으로 보나 이는 분명한 ‘차별’의 의미를 띠고 있으므로 굳이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이유는 없다. 말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차별’의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차별’을 느끼는 것이라면 이는 곧 ‘차별 표현’으로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1990년대에 베트남과 다시 국교를 회복하면서 사업 등의 여러 이유로 베트남에 간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들 중에서도 합법적인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나지 않거나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 받은 경우에 이들 역시 새로운 ‘라이파이한’, ‘신(新)라이파이한’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 외에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 등지에는 한국인 남성들의 비도덕적 행동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해서는 ‘라이베리아판(版) 라이파이한’ 등과 같은 식으로 ‘~판 라이파이한’이란 표현이 사용되는 실정이다. 앞으로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행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과 문제제기, 해결 방안 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어야 하거니와, 이와 함께 이들 2세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바람직한 표현을 위한 제언

‘라이파이한’이 베트남 내에서 차별과 비하의 의미를 내포한 표현이므로 우리가 이를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 그 대안 표현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첫째, 이들을 단순히 ‘한국계 베트남인’이라고 부르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계 ~인’이란 표현은 특정 국가 국민의 혈통을 명시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중립적인 표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계 베트남인’이란 표현은 ‘라이파이한’이 지니고 있는 남다른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급증한 베트남-한국 간의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베트남에 정착한 경우도 ‘한국계 베트남인’이 되고, 한국인 가정이 베트남에 이민을 떠나 정착한 경우 교포 2세도 ‘한국계 베트남인’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계 베트남인’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이들을 제한하여 가리

킬 필요가 있을 때라면 ‘베트남 참전 한국인 2세’ 정도로 부를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 표현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한국인 아버지들의 도덕적 의무를 드러내지 못하고,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할 비도덕성에 면죄부를 주는, 지나치게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이러한 비판은 실제 전문가 협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라이파이한’이란 용어가 지닌 차별적 의미와 문제점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 역시 쉽지 않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라. 이주민 관련 차별 표현

1) 동남아 노동자 / 이주 노동자

○ 동남아 노동자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근로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수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¹⁰⁾ 1990년대 이후로 노동 인력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을 유치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들이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동남아 노동자’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동남아 노동자’라는 용어는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서유럽 노동자, 북미 노동자, 한국 노동자’ 등과 같이 특정 지역명과 노동자를 결합할 때에는 대개 그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출신 지역을 불문하고)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정 지역 출신의 노동자들을 가리킬 때에는 ‘~인 노동자’ 혹은 ‘~ 출신 노동자’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동남아 노동자’라는 용어는 ‘동남아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는 동남아 출신의 노동자’를 가리킨다. ‘동남아 노동자’란 표현이 이처럼 일반적인 표현 방식과 다르다는 점은 이 용어가 단순히 ‘동남아 출신의 노동자’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동남아 노동자’라는 용어는 1990년대 한국인들이 취업을 꺼리는 3D 업종을 중심으로 동남아 출신의 산업연수생들을 대거 유치하면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이 용어에는 ‘경제력이 낮은 국가 출신

10)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산업연수나 회화 지도, 교수 및 연구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195,775명이다.

의, 3D 업종에 종사하는 육체노동자'의 의미가 덧입혀지고,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이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인보다 못하다.'라는 차별적 의식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동남아 노동자'라는 용어에 내포된 부정적 의미와 사용은 더 나아가 피부색이 어두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선입견, 편견,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에 거주하는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은 으레 육체노동, 특히 3D 업종에 종사할 것이라는 편견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공공언어에서는 '동남아 노동자'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특정 지역이나 국가 출신의 근로자를 가리켜야 할 상황이라면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특정 지역을 막론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 기관의 명칭에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외국인 노동자' 못지않게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미누와 이주노동자 문제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전략) 우리나라의 법은 이주노동자들에게 3년 이상 국내 체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국적취득 요건은 5년 이상 계속 거주를 요구한다.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은 시키되 한국 국적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 입장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을 지켜서 3년 이전에 출국한 선의의 외국인
인과 법을 어긴 불법 체류자 사이에 법의 형평은 있어야 하기에. 문
제 해결이 쉽지는 않으나 어쨌든 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주노동자들은 소위 '3D업종'(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
는 직종에 종사하므로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부작용 없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3년이 지나면
우리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단계인데, 무조건 본국송환이라니 이것
은 고용주도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다.

우리도 1960년대 서독에 광부, 간호사를 파견했고, 1970년대 중동
에 많은 건설노동자들을 보내지 않았던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더 관대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난
2007년 2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우리가 **이
주노동자**들에 대해서 비정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견지해온 것은 아닐
까. (후략)

[한겨레신문] 2009. 11. 1.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는 'migrant worker'를 번역한 용어로서, 국가
간의 노동력 이동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
서 이 용어 역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
는 국가 경계를 넘어 이주하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것 외에 좀 더 폭넓
게는 한 국가 내에서 계절에 따라 일을 구하느라 이주하는 노동자들을
가리키기도 한다.¹¹⁾ 따라서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외국
인 이주 노동자’라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노동자’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립국
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노동자’는 첫째,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

11) 중국 내에서 낙후된 지역으로부터 보다 발전된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노
동자들이라든가, 미국에서 계절에 따라 추수하는 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일을 하는 노
동자 등이 그 예이다.

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로, 둘째, “육체노동을 하여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노무자.”라 정의되어 있다. 이 중에서 ‘노동자’의 첫 번째 정의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근로자’의 정의와 의미상으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¹²⁾ 그런데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흔히 ‘노동자’라는 용어는 그 두 번째 의미, 즉 ‘육체노동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육체노동’ 및 ‘육체노동자’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 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어서, 이로 인해 ‘노동자’라는 용어는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낮은 지위를 지닌 사람이라는 인식과 연결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좀 더 차별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즉 ‘외국인 노동자’는 ‘경제력이 낮은 국가 출신으로서, 주로 생산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차별성의 문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물론 ‘노동자’라든가 ‘육체노동자’라는 용어에서 부정적인 어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 특히 ‘육체노동’에 대한 잘못된 편견의 결과이므로 이 때문에 굳이 이 용어를 배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또한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이 없고, ‘노동자’라 지칭되는 것에서 특별한 ‘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노동’이나 ‘노동자’에 덧입혀진 부정적인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를 회피하기보다는 ‘노동’이나 ‘노동자’라는 단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12) 물론 ‘노동자’가 ‘근로자’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거나 혹은 서로 다른 이념적인 함의를 지닌다는 견해도 있다.

○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공식적인 용어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되고 있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같은 공식기관의 명칭에서는 물론이고, 그 밖의 법령 등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노동부령 제327호)되어 2009.7.8부로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구직신청시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은 첨부서류에서 삭제, 고용변동 등의 신고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조정,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에 숙식비 부담 주체에 관한 설명 추가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 최근 제·개정 법령] 2009. 7. 9.

이는 ‘외국 국적을 지닌 근로자’라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혈통이나 출신 지역 등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중립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는 이른바 3D업종이라 불리는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계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는 외국인이라든가 대학의 외국인 교수, 학교나 학원의 이른바 ‘원어민 강사’ 등과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그리고 한국에서 취업을 한 외국 국적의 교포2세 등까지도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다. 직종에 따라, 출신 지역에 따라 좀 더 제한적으로 언급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부브, 나를 ‘불법 사람’으로 차별하는 것들, 1998년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 노동자의 기고 중에서.

시간이 지나 한국어에 익숙해지자 “어, 우리말을 잘 하시네요.”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이 귀찮기 이를 데 없다. 택시를 타건, 지하철을 타건, 시장에서 물건을 사건,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가건,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말이다.

한번은 길을 걸어가는데 엄마와 같이 가던 한 아이가 “엄마, 미국인이야!”라고 소리치자, 엄마가 “저 사람은 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야.”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 종류가 한국인, 미국인, 외국인 이렇게 딱 세 가지인 듯 말이다.

2) 결혼 이주 여성 / 여성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와 유사하게,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한국에 오게 된 여성들을 ‘이주 여성’이라고 부르는 일이 많았다. 여기에 목적과 특수성을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혼 이주 여성’과 비슷한 용어로 ‘여성 결혼 이민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성별을 불문하고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을 가리키는 데 법무부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바로 ‘결혼 이민자’라는 용어이다.

“힘드시죠?” 결혼 이민자 가정 격려

김경한 법무장관은 ‘09. 6. 29.(월)10:30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안산을 방문하여 오전 내내 이동출입국사무소와 외국인 주민 센터, 결혼 이민자 가정을 방문하는 등 정책 현장을 다녀왔다. (중략)

결혼 이민자인 이 채(태국)씨 부부의 집에서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5개국 출신 11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법무부 홈페이지, 현장체험방문] 2009. 7. 10.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온 ‘여성’을 가리킬 때에는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 국적 취득, 이혼과 국적문제, 여성관련법률, 상담기관 안내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록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 하였습니다.

위 책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및 외국인 신분에 따른 불안정한 지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기존 제도나 법률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인권 보호 및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000부가 제작되었으며, 인천공항 등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심사 단계부터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배포, 상담 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2006. 3. 12.

그런데 ‘이민’이란 보통 가족 단위의 이동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혼자 한국에 오는 여성들의 경우는 ‘이주’라는 표현이 더 걸맞다는 견해 등도 있어서(김혜순 2009:42), 일반적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이란 용어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울산동구 **결혼이주여성** '어울림 한마당' 열려

울산시 동구는 24일 오전 11시 동구 화정동 화정체육관에서 관내 결혼이주여성의 화합행사인 2009년 결혼이주여성 어울림 한마당 행

사를 가졌다.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기를 높이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중략)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열린 모범 다문화 가정의 부부 4쌍에 대한 표창에 이어 노래자랑, 명랑운동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구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과 지역주민 사이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 10. 24.

일반적으로 위의 사례와 같은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이들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태도나 의식’을 나타내지 않는다. 오히려 기사의 내용은 이들에 대한 포용과 화합을 다루고 있으며, 이 때 ‘결혼이주여성’이란 용어는 ‘중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듯하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에는 경제적, 정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한국에 결혼을 하러 온 외국 여성’이라는 인식이 이들을 취업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과 같이 보아 ‘이주노동자’와 유사하게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측면이 있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 서유럽 등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 출신으로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는 ‘결혼이주여성’으로 부르지는 않고, 이 용어가 대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로부터 온 여성들만을 제한적으로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결혼이주여성’은 실제 ‘차별적 표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4장의 ‘결혼이주여성 인터뷰’와 아래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 여성들 자신이 이 용어의 사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결혼여성 인터뷰

박후세바쌀타나트(BAKUSHEVASALTAN), 23세, 여성, 키르기스스탄, 약

2년 전 남편과 결혼하면서 한국에 왔고, 현재 둘 지난 딸이 있다.

❶ '결혼 이주 여성', '결혼 이민자 여성'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 외국 사람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필리핀,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키르기스스탄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외국사람'으로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차별을 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결혼 이주 여성', '결혼 이민자 여성'이라는 말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 여성'이라는 뜻이 들어있으므로 몹시 불쾌합니다. 결혼은 한국 사람끼리 하는 결혼이나 저희가 하는 결혼 모두 한 가지인데 그렇게 차별해서 부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을 정책적으로 처벌해줬으면 좋을 정도로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저희를 차별해서 부르는 사람에게 벌금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❷ 그럼 '결혼 이주 여성' 이나 '결혼 이민자 여성'이란 말 대신 어떤 말로 불리면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결혼'과 '이주' 혹은 '이민' 이런 말이 용어에 들어가면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온'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 두 단어는 같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다른 외국인들처럼 '외국인'이라고 불리면 좋겠지만 그럼 범위가 너무 큰 용어가 되므로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 '남편이 한국 사람인 외국인' 이런 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고서에서도 나온 '국제결혼 여성'이라는 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❸ 혹시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봤다면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런데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 안 좋은 내용의 뉴스가 많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비자 만료에 너무 민감한 것 같습니다. 비자

만료된 사람에게 '불법'이란 단어를 붙여서 부르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단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 계속 있는 것뿐인데, 너무 범죄자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뉴스는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한국에서 외국 사람을 너무 나쁘게만 봅니다.

키르기스스탄에도 '고려인'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들에게 집 등을 대여해주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 모두 잘 정착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그들을 불쌍한 나라에서 온 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들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 여성' 뉴스는 아니었지만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혼혈아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혼혈아의 돈을 빼앗고 때리고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정말 처벌받아야 돼요. 잘못된 것도 없는데 혼혈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한편, '결혼이주여성'처럼 공식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자주 쓰이는 '외국인 며느리'란 표현도 있다.

외국인 며느리들 추석맞이 교육

앵커: 추석 준비에 주부들의 골치가 벌써부터 아프실 텐데요. 외국인 주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린 외국인 초보 주부의 추석 준비를 위한 교육 현장을 김영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외국인 주부들이 웃고름 매는법을 배웁니다. 피부도 언어도 모두 다르지만 곱게 단장한 여느 한국의 여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정성을 다해 큰 절도 올려봅니다. (중략) 낯선 이국땅에서 명절준비가 마냥 두렵기만 했던 외국인 주부들, 오늘 하루 부쩍 커진 자신감에 벌써부터 추석

이 기다려줍니다.

[MBC 뉴스] 2009. 9. 19.

한국인 섬기는 **외국인 며느리들**

앵커: 우리나라로 시집 온 **외국인 며느리들**이 봉사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봉사활동까지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지난 11일 전국지체장애인대회가 열린 서울 88체육관. 추운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회에 참가한 장애인들을 정성껏 안내하는 봉사자들이 보입니다. 자원봉사자 중에는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시집 온 **외국인 며느리들**로 구성된 다문화 적십자 봉사회원들입니다. 일본, 태국, 베트남 등에서 온 이들은 가정을 꾸리느라 바쁜 와중에도 짬짬이 틈을 내어 봉사활동을 합니다. (중략) 이들이 처음 만난 건 작년 7월 양천구 적십자 봉사관의 문화교실에섭니다. 한글과 한국 생활에 대해 배우던 이들은 봉사활동을 하기로 뜻을 모으고 올해 3월 다문화 적십자 봉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가족들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중략) 누구보다도 더 한국인답게 살아가는 다문화 봉사회원들. 단순히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훈훈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2009. 11. 19.

‘한국인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차별적 표현’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규정된 ‘외국인 며느리’가 아니라, 그러한 맥락과는 상관없이 ‘외국인 며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을 ‘외국인 아내’ 혹은 ‘외국인 주부’가 아닌 ‘외국인 며느리’로 규정하는 것은 여성을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구

시대적 발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맥락을 고려하여 시부모에 대한 ‘며느리’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 며느리’라는 표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 바람직한 표현을 위한 제언

‘결혼이주여성’에 묻어 있는 부정적인 어감에 대한 대안적 용어로, ‘국제결혼 여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international)’의 의미는 ‘이주’보다는 계층적 함의가 덜하여 보다 중립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방법의 일환으로 수행한 인터뷰에서도 고학력의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은, “‘이주 여성’보다는 ‘국제결혼 여성’이라고 불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한 외국 여성들을 ‘이주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국 남성과 국제 결혼하였기 때문에 이주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을 배제하고, 또한 앞서 살펴본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아동’이 지니는 지나치게 넓은 개념보다 더 명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로서 ‘국제결혼 여성’, ‘국제결혼 가정’,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라는 용어가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¹³⁾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결혼’이라는 용어 역시 ‘다문화’만큼이나 다양하고 이질적인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넓은 개념이므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하게 된 외국 출신의 여성’에 대해 언급할 때 단순히 ‘국제결혼 여성’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국제결혼 여성’의 범위에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외국으로

13) 한 신문기자는 다문화 관련 보도 기사를 작성하면서 ‘학문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데다가 용어 자체에 차별적 요소가 있어’ 다른 용어보다는 ‘국제결혼 가정’과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박희준, 다민족 사회 코리아 리포트, 한국기자협회, 2007. 5. 17).

이주한 한국인 여성’,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여성’,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외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 등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 출신으로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과 관련한 문제를 기술할 때에는 이들을 제한적으로 가리켜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기존의 ‘결혼이주여성’이 지닌 부정적, 차별적 느낌을 배제하는 동시에 ‘국제결혼 여성’이라는 너무 넓은 개념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이주한 국제결혼 여성’이나 ‘국제결혼으로 ~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우회적 표현은 ‘결혼이주 여성, 국제결혼 여성’과 같은 표현에 비해 더 복잡하고 번거롭게 보이지만, 기존의 단순, 명료한 표현이 흔히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3) 귀순자, 탈북자, 새터민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에 대한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귀순자, 탈북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불린다. 이 용어들은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므로, 사용 맥락에 적합하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귀순자’나 ‘탈북자’의 경우는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고, 정치색이 드러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새터민’ 같은 경우가 남한 정착의 의미를 담고 정치색이 드러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용어이기는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북한을 이탈했다는 본질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 또한 정치색을 완화하면서도 북한에서 이탈

하였다는 본질을 드러내는 장점이 있지만, 남한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의미를 담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사람에 대해 명확한 하나의 대안 표현을 제시하기는 현재로는 어려운 상태이다. 개별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속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최대한 맥락에 적합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개별 용어들이 사용되게 된 유래와 사용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귀순자(歸順者), 귀순용사

예전에는 탈북한 사람들을 ‘귀순자’라고 부르는 일이 많았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는 일을 일컫는 귀화(歸化)와는 달리 귀순은 적대적 국가로 온 경우를 가리킨다. 초기에는 그 수가 많지 않았고 특히 정치적 목적의 탈북, 공군 조종사의 탈북이 두드러져 이를 영웅적인 행위로 보아 ‘귀순용사’라는 용어도 널리 쓰였다.

지난 1일 오후 동해 주문진 해상으로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11명이 정부의 1차 합동조사를 받은 뒤 서울로 이동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양 기사문항에서 1차 조사를 마친 북한 주민 11명이 2일 새벽 4시20분쯤 서울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1차에서는 간단한 건강검사와 귀순 경로 등이 조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 2명이 **귀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배가 남측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배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기관들은 “아직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앞서 북한 주민 11명은 1일 오후 6시30분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 앞바다에서 해경에 **귀순** 의사를 밝혔으며, 양양 기사문항으로 옮겨져 합동조사를 받아왔다. **귀순자**는 남자 5명, 여자 6명으로, 전날 오후 6시30분쯤 3톤 규모의 ‘전마선’(傳馬船·소형 고기잡이 배)을 타고 동해 상으로 넘어왔다.



[조선일보] 2009. 10. 2.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해킹이나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갖췄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귀순자](#)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책공대와 평양 컴퓨터기술대학의 영재급 졸업생을 군 사이버전 조직으로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북한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께 정보보호 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중앙일보] 2009. 7. 6.

나는 자유인이다 - 탈북자 리영광의 자연주의 삶

동부전선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 용산골 북한 인민군 제1집단군에 복무 중이던 21세 청년 리영광은 입대한 지 석 달 만인 1967년 9월 18일 밤 휴전선을 넘었다. 추석날이었다. 한 달 뒤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귀순용사](#) 리영광에게 기자들이 물었다. 귀순 동기는? 리영광이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세계다.주를 (?)하기 위해 왔다.” 냉전시대, 정보기관에서도 그의 맹랑한 귀순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애를 먹었고 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 2009. 5. 12.

○탈북자

기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귀순용사’, ‘탈북동포’ 등의 이름으로 불리곤 했다. 그런데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가 자신을 탈북자라고 주장하면서 ‘탈북자’ 용어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북한의 식량난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이들을 ‘탈북자’라는 집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률적 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2004년부터는 통일부에서도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탈북자’란 용어를 인정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1999년 7월 8일, 경기 안성시에서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 ‘하나원’ 개소식이 열렸을 때 **탈북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남한으로 올지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1002명. 6·25전쟁이 종전된 1953년 7월 이후 46년간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전체 인원이었다. 하나원은 1994년부터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가 매년 40~80명씩 되자 이들의 남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시설로 세워졌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탈북자**는 한 해 수십명에서 지난해 3005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나원을 거친 **탈북자**들도 지난달 말 현재 1만4297명에 이른다.

[동아일보] 2009. 7. 8.

“어디서 왔어요? 조선족이야?”

탈북자들은 한국사회 적응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언어’와 ‘편견’을 꼽았다. 특히 한국에 올 때 언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탈북자**들은 “의사소통이 안 될 때 가장 곤혹스러웠다”고 밝혔다. **탈북자** 200명 중 33명(16.5%)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 59명

(29.5%)은 ‘탈북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힘들다고 답했다. 말투 등 언어문제로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남한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겪었다고 털어냈다.

[동아일보] 2009. 10. 27.

“탈북자 꼬리표 지겨워” 한국국적 숨기고英서 난민의 삶

김 씨는 탈북자라는 이유로 계속되는 차별을 견디기 힘들어 같은 탈북자인 남편과 함께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국에서 의류 공장, 식당,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해도 한국 직원들에 비해 항상 월급이 적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결국 반항심만 커져갔다”며 “한국보다는 낫겠다 싶어 왔다”고 말했다.

탈북자 최지혜 양(16)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고향이 강원도라고 속였다. 한국에 입국한 뒤 처음 다닌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탈북자라고 이야기했다가 집단따돌림을 당한 뒤부터는 철저히 고향을 숨겼다.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것을 한사코 말렸다. 어머니 이명숙 씨(41)는 “딸이 성적은 괜찮았지만 한국에서는 ‘탈북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아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9. 10. 26.

그런데 탈북자는 ‘북한 체제에 반대하여 나왔다’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이에 따라 정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탈북자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치범’이라거나 무서운 느낌을 가져 사회 적응에 방해가 된다는 여론이 생겨났다.

○새터민

2005년 ‘탈북자’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많으며 통일부에서 ‘새터민’을 대안적 이름으로 발표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순 우리말로 탈북자의 어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낳았으나 오히려 당사자들의 현실을 무시한 용어라는 반발을 낳기도 하였다.

2007년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탈북자 2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는 ‘새터민’이 아니라 폭압과 독재의 나라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라고 주장하며 ‘새터민’이 아닌 ‘탈북자’로 용어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새터민’은 단순 이주만을 의미하고 있어 김정일 정권의 학정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의 의미가 무시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탈북자에서 새터민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안 되던 취업이 바로 잘 되겠느냐”며 “독재 체제를 거부하고 자유를 찾아온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명칭”에 반대하였다.

또한 ‘새터민’은 남한에 도착하여 정착하려는 사람만을 포괄할 수 있고, 남한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채 중국 등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다. ‘새터민’만으로 통용되게 될 경우 아직 남한에 들어오지 못한 채 떠도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사라지게 되고, 이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통일부에서는 2008년 11월 21일 ‘새터민’이란 용어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 이 용어는 가급적 쓰지 않기로 했다. 서로 논쟁이나 쟁점이 있으면 그것을 가급적 피해 가는 방향에서 법률에 의한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기관을 비롯한 단체, 언론 등에서 부드러운 어감을 지닌 ‘새터민’에 친숙함을 느껴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새터민 의료센터’, ‘새터민 콜센터’, ‘새터민 청소년’ 등의 용어가 있다.

새터민(남한 정착 탈북자)들과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부속 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7

차 통일체육 축전'에 참가해 피구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사)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새터민** 400여 명 등이 참석해 남북의 놀이 문화를 함께 즐겼다.

[한겨레신문] 2009. 10. 11.

새터민 부부 결혼식 “코레일 고마워요”

“남한에 내려와 살게 된 것도 꿈만 같은데 좋은 반려자를 만나 결혼식까지 올리니 정말 기쁩니다.“ 2005년 압록강을 건너 **탈북한 새터민** 신랑 이필한(56·가명)씨와 신부 김명자(46·가명)씨는 25일 오전 11시 부산역 3층 맞이방에서 늦은 결혼식(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소감을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9. 9. 25.

○북한 이탈 주민

2008년 11월부터 통일부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이다. ‘새터민’에 대한 탈북자 단체의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 법률적 용어인 ‘북한 이탈 주민’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시설 하나원. 노란 상의와 검색 운동복 바지 차림의 20~30대 여성들이 1층 강의실 옆에 설치된 모의 투표소에서 약간은 긴장된 표정으로 투표를 한다. 남한 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다. 한 여성은 자신의 투표용지를 동료에게 보여 주며 깔깔대고 웃는다.

하나원이 8일로 설립 10주년을 맞는다. 한국 사회는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온 사람들을 더 이상 ‘**귀순자**’로 부르지 않는다. 배고픔을 피해 넘어온 **탈북자** 수가 늘기 시작한 1997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으로 용어를 지정했다. 정치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인도적 뉘앙스를 담은 용어다. 지원도 ‘탈북 영웅에 대한 포상’에서 ‘남한 사회 정착 지원’으로 바뀌었다. 99년 하나원이 설립된 배경이다.

[중앙일보] 2009. 7. 6.

그런데 이 용어는 현재 관공서의 공식 용어로는 사용되고 있지만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아직까지도 잘 사용되지 않는 듯하다. 아래에 제시한 인터뷰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 용어를 관공서 서류 외에는 들 어본 적이 없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에서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의 인터뷰를 보면, ‘탈북자’라는 용어에 차별적인 의미가 부여된 듯하여 거부감을 느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낯기는 하지만, 이 말 역시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면서 점차 ‘차별적’인 표현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터뷰 말미에서 언급하였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적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또 다시 ‘북한 이탈 주민’으로 바꾸면서 기존의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것만으로 ‘차별적 표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심층 면담: 새터민

(익명, 20대 여성, 정서 및 정리는 연구자)

북한에서 온 나와 같은 사람들은 ‘탈북자’라고도 하고 또한 좋은 말로 하면 ‘새터민’이라고도 한다. 아무래도 ‘탈북자’라고 하면 왠지 기분이 별로 안 좋게 생각된다. 탈북자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는 느낌,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힘들고 못사는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말 듣기가 싫다. 하지만 흔히 북한 사람들에게 탈북자라고

하니까, 이제는 별 느낌은 없는 편이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은 관공서에서 서류 뭉 때만 나온다. 보통 사람들은 모른다. 또 ‘귀순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새터민’의 뜻에 대해서는 (면담자가 ‘새로 터를 잡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줌) 이 뜻은 지금 처음 들었다. 그냥 북한에서 왔다고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나는 그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탈북자’, ‘새터민’ 등이 있는 줄 알았다. 사실 새터민이라고 하면 모르는 한국 사람도 많다. 어떤 사람은 알지만 어떤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보통 ‘북한에서 왔다’고 말한다. 그러면 ‘아!’하면서 알겠다는 표시를 한다. 요즈음은 신문 방송에서 보도되기도 해서, 새터민들에 대해서 보통 대강은 알고 있다.

북한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오겠다고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온다. 제3국을 거쳐야지만 한국에 올 수 있다. 제3국을 거쳐 온다는 사람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에 오기를 결심한다. 지금도 중국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다. 한국에 오겠다고 중국에서 경찰을 피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한 언제 잡힐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심장을 조이면서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가겠다고 결심할 때는 대단한 마음을 먹고 중국을 떠난다. 또 오는 도중에 잡히면 북한사람들은 그냥 북한으로 북송 돼서 북에 끌려간다. 물론 북한을 떠날 때도 북한사람들은 대부분 눈물 흘리고 또 아픈 상처를 안고 온다. 중국에서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픔과 상처를 받는지, 고향과 가족을 떠나는 아픔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말로는 할 수 없다.

한국에 오면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지만, 그것 가지고도 너무도 적응을 못하는 탈북자들이 아직도 많다. 왜 똑같이 힘들게 왔는데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한민국까지만 오면 잘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보다 적응을 잘 못한다. 왜 그럴까? 한국 사람들과 탈북자들이 살아온 방식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적응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노력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말투를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것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 솔직히 대한민국에 와서 모든 것을 고치고 또한 언어 차이와 또 살아가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너

무도 힘들 때가 있다.

한국에서 적응하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새터민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왜 북한에서 왔다는 말을 안 하고 숨기는 사람도 있다. 솔직히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숨길 필요는 없는데 이젠 국적도堂堂하게 있고 한테 왜 숨길까? 단지 북에서 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북한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못사는 나라라고 우습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지방에서 왔다고 하고 또한 북한 말투랑 비슷한 지방의 이름을 댈다. 나도 역시 길에서 혹시 사람들이 물어 보면 지방이라고도 할 때가 있긴 하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상하고 신기하게 봐서 부담스럽기도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제일 낯기는 하지만 그저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는 것이 나으며 그보다는 아예 한국인으로서 적응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같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의 일환으로서, 공공 언어에서 발견되는 지역, 인종 및 민족, 혈통, 이주자 등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 표현을 모색해 보았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서 수행된 ‘성별에 따른 차별 표현의 연구’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표현의 연구’와 더불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 사이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성별, 지역, 계층, 민족, 종교 등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속한 생태계 자체가 다양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성의 상실과 획일화가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다양함,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차별’로 연결하는 데 있다. ‘우리’와 ‘남’을 구별 짓고 ‘우리’를 강조하는 것은 집단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더 큰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차별’의 문제 중에는 다양한 집단 간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차별적 언어 표현’의 문제도 포함된다. 따라서 ‘차별적 언어 표현’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여러 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역 간 갈등은, 전통적인 남북 갈등이나 동서

갈등은 다소 해소된 듯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지역 간 격차로 인한 갈등은 오히려 더 심화되는 듯한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강남’과 ‘비강남’ 등으로 대표되는 ‘중심 : 비중심’의 구분은 특정 지역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우월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 언어 표현의 반복적인 사용은 단순히 ‘말’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차별 의식’을 더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기존에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해 온 ‘수도권 : 비수도권’, ‘서울 : 비서울’, ‘강남 : 비강남’, ‘서구 : 비서구’ 등의 표현이 암시할 수 있는 ‘차별성’을 인식하고, 맥락에 따라 여러 대안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현대 사회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세계화’의 흐름을 그 누구도 빗겨갈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최근 십여 년 사이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세계화’이며, ‘다문화’라는 단어 역시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되었다.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단일 국가라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을 만큼 우리 사회는 급격히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폐쇄적인 외교 정책을 고수해 왔으며, 외세의 침략과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으면서 ‘단일 민족, 단일 국가’의 신화로 공동체의 결속을 다져온 우리 사회는 ‘우리’를 강조하고, ‘다양성’이나 ‘차이’를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에 따라 아직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지닌 사회 구성원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커다란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일 민족’과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는 기존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시민, 다문화 가정을 기꺼이 인

정하고 받아들여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공공 언어에서 발견되는 특정 인종, 민족, 다문화 가정 자녀 등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을 찾아내어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 표현을 모색하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차별적 언어 표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 표현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또한 이것만으로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앞서 본문에서 동일한 표현이 맥락에 따라서 ‘차별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는 결국 어떠한 표현 자체의 문제 못지않게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맥락과 태도, 인식이 더 결정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차별 표현을 대체한 대안 표현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 다른 차별적 표현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대안 표현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들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아무리 ‘표현’ 자체를 객관적, 중립적, 긍정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대상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그 표현에 다시 부정적인 의미가 덧입혀지고 ‘차별적 표현’으로 변질됨을 보여준다.¹⁴⁾ 따라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공공 언어에서 ‘차별적 언어 표현’을 찾아내고 이를 고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특정 지역, 인종, 민족, 집단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한편, ‘공공 언어’의 영역에서는 차별적 언어 표현 사용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또한 이러한 표현을 걸러내고 고치는 것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반면, 개개인의 언어생활, 특히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14) 물론 어떠한 대상에 이름을 부여하는 ‘명명’ 행위 자체가 이미 본질적으로 구별 짓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차이’에 대한 인식이 곧 ‘차별’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극단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적 표현이
여과 없이 사용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진정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사회 통합은 바로 이러한 개개인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
여야 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
다.

참고 문헌

- 강현철·이주일(2004), 인권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 김혜순(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42-1, 한국사회학회.
- 문금현(2006), 새터민 언어 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박정일(2004), 차별어의 언어학적 연구, 부산외대출판부.
- 박천웅(2006), ‘코시안’의 의미와 이주 아동 인권, 다문화 칼럼, (2006. 2. 26.), <http://www.migrant.or.kr/zbxe/847>.
- 박혜경(2009),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비판적 국어인식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설동훈(2006), ‘코시안’ 강자의 횡포가 만든 ‘차별의 언어’, 국정브리핑 (2006. 3. 6.).
- 설동훈(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화 상호 교류, 새국어생활, 18-1, 국립국어원.
- 안상수(2007),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 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
- 원숙연(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한국행정학보, 42-3, 한국행정학회.
- 임영철(2008),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원
- 조태린(2006), 차별적·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국립국어원.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 전라북도 교육청 ‘다문화 가정’ <http://www.jbe.go.kr>
- 안산이주민센터 <http://www.migrant.or.kr>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Abstracts>

2009 Social Communication Research: Regional, Racial, and Ethnic Discriminatory Langu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a solution for the discriminatory language related region, ethnicity, and rac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members of society, such as previously performed 'gender discriminatory language research' and 'handicapped discriminatory language research'.

Discriminatory language acts as a serious problem to interfere with social integration. Therefore, understanding the actual conditions of discriminatory language and finding a solution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different groups are essential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For this study, focus group interviews, professional conference, and discriminatory languag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conducted. Regional discriminatory language, racial and ethnic discriminatory language, blood-related discriminatory language, the emigrants related discriminatory language were discussed in detail. About discriminatory language, rather than presenting an one to one alternative, the plan to reduce the discriminatory aspects and to improve objectivity was recommended.

For the integration of society, finding discriminatory language in public languages is important, but efforts to change the perception about the regional, national, racial discrimination is the more important issues were discussed together.

Keywords: discriminatory language, regional discriminatory language, racial discriminatory language, ethnic discriminatory language, blood-related discriminatory language, the emigrants related discriminatory language

연구책임자 : 박재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학원 졸업(교육학박사)

공동연구원 : 이승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보조연구원 :

이슬비(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 과정)

박지영(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 개선 연구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길 148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09년 11월 15일

발행일 2009년 11월 20일

인쇄 상명문화사